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교육지도서



발행처 :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연구/개발 : (사) 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교육지도서

---

---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교육지도서

---

###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발행일

2012. 12

### 사업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 연구/개발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http://www.kccfgg.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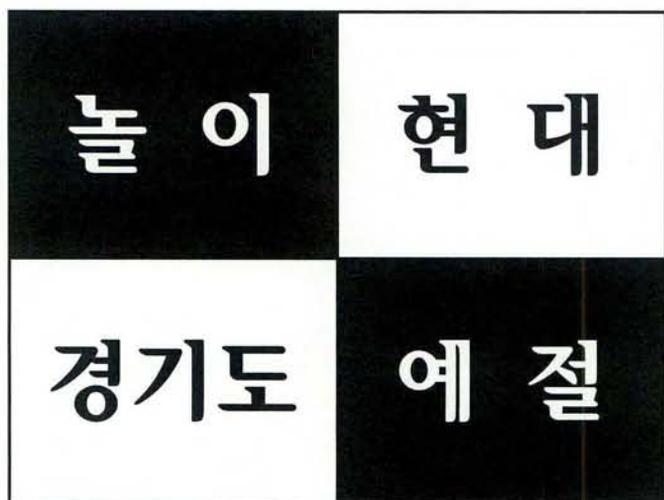
---

본 지도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도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있습니다.

본 책자는 『2012년도 경기도 보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



**경기도**

지역의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래놀이**

즐겁고 재미있는 웃음과 함께

**현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예절**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법을 익혀

아름다운 사회 속에서

행복하기를 희망합니다.

## “관계로서의 예절”에 관한 가치 혼란

이젠 선생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교권에 도전하는 청소년에 대한 기사나 왕따로 인하여 고달파하는 청소년들의 기사가 새롭지 않을 만큼 청소년 폭력이 만연해 있다. 하지만 그보다 안타까운 일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가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식당에서, 버스에서,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만큼의 큰 소음을 일으키고,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과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 아이로서의 천진난만함과 귀여움을 넘어서서 과히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인식하지 않은 태도에 훈계라도 할 지라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부모들이 자기 자식 기를 죽인다고 화를 내는가하면 심지어 꿀밤 한 대에 폭력으로 고소를 당하기도 한다.

도대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기에 우리 아이들은 타인에 대한 배려 혹은 어른에 대한 조그마한 예의조차 생각하지 못하는가?

“예절”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자면 아래와 같이 쓰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지위에 따라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과 관습의 체계”

“사회적 지위”라는 말을 굳이 사회체계에서 획득되어지는 계급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동체적 입장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보편적인 위치관계”로 본다면 가장 먼저 “장유유서(長幼有序)”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학습해왔던 관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제는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업위주의 일상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의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어려운 경제 환경 때문에 그러한 관계 교육에 중요하게 이루어졌던 가정에서부터 일명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말하는 부모님과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 빈 공간을 채워 줄 학교에서조차 바른 인성에 대한 가치보다는 대학 입시에 목메며 학업성취도를 우선시하다보니 서로를 책망할 수만도 없는 실정이다.

## 왜 문화원이 앞장서는 예절교육이 필요한가?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는 문화원은 그야말로 향토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자생적 공공단체이다. 2012년 현재 전국 229개의 문화원에서 다양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의 발전과 지역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기초 지역단위에 이르기까지 설립되어있는 이러한 문화원의 입지 조건하에 다양한 지역민들이 함께 모여 지역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발전시키며 또한 오늘날의 현실에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로 좀 더 나은 내일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의 문화원에서 이미 “우리 지역알기”라는 목적으로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각 지역의 초등학교 3학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과의 연계성을 통하여 교육적, 문화적 전문성을 키워가고 있으며, 전통 다과교실, 전통 예절교실 등의 강좌들을 개설하고 좀 더 나아가서는 부설 예절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시대적 필요성과 문화원의 역량 신장, 다양한 사업 경험을 통한 지역적 소통의 확보를 토대로 어린이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하고자 하였다.

## 문화원에서의 예절교육? 문화적 요소로 접근할 수 없을까?

인성교육, 전통다과교실, 전통예절교실, 청학동 교육 등 다양한 이름과 방법이 동원된 예절교육이 이미 학교 안팎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에 너무 일찍 체념해버린 혹자들이 말하듯 “지루한 예절교육을 요즘 아이들이 받아들일까?”라는 푸념 아닌 푸념이 무색하리만치 현장에서 들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반응은 그야말로 그런 어른들을 당황하게 한다.

전통예절수업에 1차시만 참여하더라도 아이들은 교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반응이 달라질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예절교육의 효과는 짧게는 2~3일, 길면 1주일 정도까지 유지된다고 하니 앞서 이야기한 안타까운 현실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며 아이들 탓만을 해온 어른들의 그릇된 자세들도 고쳐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한 차시의 교육으로도 변화를 보여주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며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예절교육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좀 더 체계적이고 아이들의 직접적인 갈등과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교육방식으로 그 효과를 지속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원되는 예산을 비롯하여 강사 수급의 문제,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 및 커리큘럼 등의 제도적 장애로 인해 아직은 예절교육 자체가 정규과정으로 편성되기 힘든 현실임도 감안해야 한다.

이에 새로운 고민이 주어지게 된다.

**첫째, 정규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아이들이 타인에 대한 배려를 익힐 수 있는 방법**

**둘째, 스스로 움직이는 체험학습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즐기며 공감할 수 있는 방법**

**셋째,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배우고 익혀야 할 에티켓 또한 변화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현대 사회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국 전통의 가치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

이러한 방향 설정과 함께 우리 고유의 정서 속에서 뛰어놀며 성장해왔던 어린이 민속, 전래놀이와 연계한 교육을 기획하였다. 아이들이 전래놀이를 잃어버린 것은 아이들 탓이 아니라 너무 빨리 현대화되어버린 시대가 우리 아이들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했기에...

## **놀이와 예절, 놀이 속에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전래놀이는 고대로부터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전통 사회가 기르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또래집단 내에서의 “경쟁-화합-소통의 과정”을 통해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정놀이(소꿉놀이 등) 속에서 나의 존재를 재인식하며 부모-형제-친지에서부터 이웃과 지역사회까지 하나가 되고, 또래집단 내에서의 다양한 놀이를 통해 새로운 규칙을 함께 만들거나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조율해나가며 나와 남의 관계 속에서 그들만의 사회적 규칙을 만들며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놀이 속 성장”은 더 나아가 마을의 공동체 놀이를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며 훗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갈 역군으로서의 면모 또한 갖추게 한 것이다.

전래놀이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가치는 본 사업의 목적에도 부합한다. 나아가 잊혀져가는 전래놀이와 동요의 발굴과 계승, 보급은 향토사를 발굴/보급하는

문화원의 설립 목적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전래놀이”는 본 활동에 있어서 안성맞춤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전래놀이 속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정서를 오늘에 되살려 우리 아이들에게 현대 생활과 예절을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였다.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교육지도서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 Contents

## 제 1장 교육의 배경

### I. 놀이와 전래놀이

1. 놀이의 의미와 효과	14
2. 전래놀이의 의미와 특성	20
3. 전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25

### II. 현대생활과 예절(禮節)

1. 예절의 의미	28
2. 현대 생활과 예절	34

## 제 2장 교육의 실제

### I. 교육의 구성

1. 교육구성의 배경과 목표	39
2. 교육구성의 방향과 콘텐츠 도출	43

### II. 교육의 진행

1. 교육 프로그램	49
2. 프로그램별 교육지도안	52
3. 교육 진행자료	65

## 제 3장 부 록

I. 신나는 전래놀이	80
II. 기본 생활예절	104

## 별 첨 교육사진 및 참고문헌

I. 교육 사진	117
II. 참고 문헌	123

# 여 백

## 제 1 장 교육의 배경

### I. 놀이와 전래놀이

1. 놀이의 의미와 효과 / 14
2. 전래놀이의 의미와 특성 / 20
3. 전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 25

## I 놀이의 의미와 효과

### 1. 놀이란 무엇인가?

#### 1) 어른들의 놀이, 아이들의 놀이

사람들은 누구나 놀이를 즐긴다. 놀이를 즐기는 까닭은 재미있고 즐겁기 때문이다. 놀이의 즐거움을 통하여 생활 속에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정신적 고통을 잊어버리고, 생업에 종사하는 동안 지쳐 있던 육체적 피로를 풀어내기도 한다. 일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고통을 참아가며 제약된 상황 아래 참여하는 활동을 '일'이라고 한다면, '놀이'는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목적이 없는 활동으로서 즐거움과 흥겨움을 동반하는 가장 자유로운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재미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즐기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활동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곧 피로를 풀어주고 원기를 회복시켜 생활에 탄력을 주고 삶의 기쁨을 표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놀이'의 기능적 측면에 주목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놀이'의 의미에 대해 어원적으로 살펴본다면, '놀이'란 '놀다'의 어간 '놀'에 명사형 어미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로 분석된다. '놀다'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을 지니고 있는데, 소극적 의미에서 일을 하지 않고 쉬는 휴식의 뜻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으로는 재미를 즐기기 위하여 일정한 놀이 활동을 한다는 뜻도 있으며, 더러는 주책없이 들떠서 마구잡이로 행동하거나, 제자리에 붙박혀 있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또는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는 것 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적극적인 놀이 활동으로서의 '놀다'는 악기를 연주하는 일, 노래 부르는 일, 춤추는 일, 일정한 형상을 그려내거나 만들어내는 일, 경기를 통하여 승부를 겨루는 일, 거닐면서 노니는 일, 특별한 재주와 기량을 발휘하는 일, 어떠한 사건을 꾸며내어 극적으로 보여주며 즐기는 일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영어의 플레이(play)에 해당되는 말뜻을 지녔다고 하겠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놀이'의 개념은 다소 상이한 정의를 요구받게 된다. 아이들의 활동에는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으며 크게는 '놀이'가 곧 '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 속에서 놀이를 배우고 놀이

속에서 속해진 사회의 일을 배우며 점차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이는 어린이 문화로서의 '놀이'를 이해하는 가장 큰 전제조건이자 '놀이'가 갖는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대변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는 놀이가 삶 그 자체'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어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말 중에 '놀지 말고 공부해라'는 말에서 보여 지듯이 어른들의 '일'과 '놀이'에 대한 이분법적인 사고방식 하에서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어른들 또한 '어제의 아이들'이었음을 되새겨본다면 결코 납득이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사회 속에서 '놀이'의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가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과 그를 토대로 한 발달적 요소의 중요성은 오히려 부각되고 있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교과서 내용 속에는 놀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통합적 교과요소로서 중요한 매개체가 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부시간에 놀이를 함으로써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인 수업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하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이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놀이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습득하게 되는 다양한 학습의 결과물들에 어른들은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래놀이의 경우 그 민족의 정신세계가 승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환경적 배경을 반영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놀이 속에 담겨져 있는 민족문화의 가치와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각광받고 있으며, 현대의 물질문명과 외래문화에서 파급된 운동과는 달리 우리 조상들의 빛난 얼과 슬기가 담겨져 오랜 세월 계승, 발전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이 놀이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에게서 같은 의미이면서도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즐거움 또는 재미를 얻기 위한 자발적 행동이라는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동일선상에 있으나 어른들에게 있어서 놀이가 피로를 풀며 일상생활이나 일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전환하는 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생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효용성을 나타내는 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놀이란 일과 대립되지 않으며,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놀이 자체가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놀이 속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인 것이다.

## 2) 놀이를 통한 성장

‘현대 사회에서 아동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부적응 문제는 놀이시간, 놀이 문화의 축소, 놀이를 좋아하더라도 할 수 없는 사회적 상황과 높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는 놀이가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대변해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성장 단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놀이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놀이를 잘 하는 아이들이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리더십이 있으며 사교적인 특성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무색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입문기인 1학년 때부터 학교 공부가 끝난 후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거나 교문 앞에 대기하고 있는 학원차를 타고 학원으로 발길을 재촉하기에 바쁘다. 집으로 곧장 돌아가는 아이들이 소수이기에 친구와 함께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한두 자녀를 키우는 요즘 세대에서 아이들은 단체 생활을 더욱 힘들어한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면이 강해지고 작은 일에도 다툼을 벌이며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한 성장 불균형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이가 학교 현장에서부터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주목할 만하다. 유아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놀이를 중시하는 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일반 초중등학교에서는 놀이에 관한 광범위한 관심이 요즘 들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놀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현 시대의 교육적 방향이 서로 부합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놀이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모든 놀이는 자발성에 근거한다.

어느 나라의 어린이든 어느 연령의 아이들이든 놀이를 즐기지 않는 아이는 없다. 또한 건강한 아이들의 경우 잠자는 시간 외의 깨어있는 동안은 움직임의 연속이라 할 정도로 끊임없는 동작과 행위가 이어진다. 짧은 시간에 그치는 집중력이라고 할지언정 아이들은 자신의 호기심과 즐거움에 대해 가장 솔직한 반응을 보이며 ‘하고 싶어서 하는’ 놀이를 즐기는 것이다. 남에 의해 강요된 놀이는 이미 재미있는 놀이일 수 없다. 똑같은 노랫말과 동작을 되풀이 하더라도 그것이 재미있는 이유는 놀이로 인한 즐거움이 놀이를 하고 싶다고 여기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놀이는 일상생활과는 다른 시공간에서 펼쳐진다.

놀이가 즐거운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일상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들 역시 놀이가 행해지는 그 시간, 그 공간에서만큼은 숙제할 걱정, 학원갈 걱정, 심지어는 밥 먹을 생각조차 벗어나 있게 된다. 이러한 놀이 세계는 실제의 삶에서 벗어나기에 일상생활에서의 걱정이나 짜증,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신적인 휴식은 물론 신체적인 에너지도 보충하여 주게 된다.

셋째, 놀이는 지속성이 있다.

지속성이란 놀이가 가지고 있는 '열린 구조'를 의미한다. 하나의 놀이, 한 번의 놀이가 아닌 계속되어지는 놀이는 그 자체로서 재미이자 즐거움이다. 하나의 놀이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지혜와 사고를 통해 보완, 수정, 완성되었다고 할 때, 이러한 놀이의 발전은 곧 놀이를 즐기는 사람의 발전이 되어온 것이다. 오늘 자신의 놀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만족을 위해 내일 또 다시 놀이가 이어지고, 만족스럽다면 더 나은 만족을 위해 놀이가 이어지며 무한 반복과 되풀이를 통해 연결되는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모든 놀이에는 고유의 형식과 내용이 있기 마련이다. 놀이의 형식과 내용은 곧 그 놀이가 성립될 수 있는 규칙과 상통하는데, 놀이의 규칙이 위배되는 순간 놀이의 세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각 놀이는 규칙에 의해 진행될 때 승패와 경쟁을 유발시키게 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긴장감이 아이들을 놀이에 동화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놀이가 지니고 있는 특성들은 놀이에 참여하고 집중하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체화된다. 즉, 놀이를 재미있게 즐기는 아이들은 자발적인 동기 유발이 자연스럽게 적극적이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와 이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조화로우며, 창의성에 기인한 열린 사고로 꾸준한 인내력을 갖고, 정해진 규칙을 준수하고 상대를 존중하는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 2. 놀이의 효과

아이들의 생활이자 일이라 할 수 있는 놀이는 단순히 논다는 의미를 벗어나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놀이 속에서 아이들은 신체 발달은 물론 지적, 인지적 발달, 창의성의 함양, 갈등과 긴장 속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같은 일상의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정서적 발달을 이룩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정서의 순화와 함께 한 명의 어엿한 사회 구성원으로 차츰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살펴본 바 있는 놀이의 의미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데, 놀이 자체가 삶의 활력 소이자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놀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규칙에의 준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자기들끼리의 놀이 속에서 그들만의 사회를 구성하고 놀이 규칙을 통해 그들만의 소통을 통해 점차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한 단계씩 성숙하게 되는 것이다.

### 가. 신체의 균형적인 발달

아동기는 많은 활동들을 통해 성장하는 단계이다. 밀고 당기고 치고 도망가고 뛰어 다니면서 아이들의 신체는 각 부분이 골고루 발달하게 된다. 유아기를 거치며 몸의 각 부분이 자리를 잡았다면 이를 활발히 움직이고 스스로 사용하면서 단련함이 필요한 아동기에 놀이는 가장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신체 발달을 유도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발달 과정에서 필수적인 몸의 균형과 신체의 항상성(Homeostasis, 恒常性)-몸 속의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을 유지시켜 주는 건강한 신체를 지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의 효과를 지닌다.

### 나. 인지적 발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겪게 되는 다양한 상황은 사물에 대한 이해력과 문제 해결력을 발달시킨다. 아이들은 놀이 중에 어떤 새로운 사물을 접하면 그 사물의 속성을 탐색하고 적극적으로 실험해본다. 또한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 사물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인지력을 발달시키게 되고 융통성을 갖추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력 또한 신장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는 구체적 사고에서 추상적 사고로의 전환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보다 상위 단계로의 사고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 다. 창의성 발달

모든 놀이에는 규칙이 존재한다. 놀이의 규칙은 놀이 본연의 재미와 즐거움을 획득하는 최소한의 조건이자 필수요소이다. 그러나 놀이가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다소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놀이의 공간이 좁으나, 넓으나의 문제, 놀이 인원이 많으나, 적으나의 문제, 놀이 시간이 충분한가 등의 제약적 상황은 아이들로 하여금 정해진 틀 속에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놀이 자체도 발전하게 되며 아이들은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 속으로 끌어들이며 상상력을 펼치게 되고 이는 곧 창의성의 발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라. 사회성 발달

아이들에게 친구는 곧 함께 노는 또래 아이들을 의미한다.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펼쳐지는 작은 그들만의 사회 속에서 협동하고 사이좋게 놀거나 경쟁하고 싸우며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법을 알아가는 것이다. 놀이 속에 놓여진 시공간은 그 놀이를 펼치는 아이들만의 전유물로서 그들만의 의사소통과 의견 개진을 통해서 소통하고 합의하게 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며 여러 가지 사회적 학습을 익혀나가게 되는 것이다.

## 마. 정서적 발달

아이들에게 놀이의 목표이자 목적은 보다 순수한 의미에서의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난 후의 만족감은 내일에 대한 기대감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즐거움과 흥겨움에 대한 또 다른 욕구를 불러일으킴으로서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의식은 자신 혼자만이 아닌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 때 얻어지게 되는 결과물에 대한 인식으로 원하는 결과 도출을 위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줄 알고 자율성과 인내심을 향상시킨다. 또한 또래 집단내에서의 지도적 역할을 통해 긍정적인 자아개념 및 자기 존중감 등의 정서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정서 표현 방법의 획득과 갈등상황에서의 극복 방법 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 Ⅱ 전래놀이의 의미와 특성

### 1. 전래놀이의 의미

#### 1) 전래놀이의 개념과 가치

전래놀이는 예로부터 우리민족이 일과 생활 속에서 창조하고 발전시켜온 고유한 민족오락이다. 산 좋고 물 맑은 이 땅에서 오랜 세월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온 우리 민초들은 명절날이나 휴식일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흥겨운 놀이를 많이 하여 왔다. 즉 전래놀이는 고대로부터 일반적으로 행해지면서 민간에 의해 전승되어 오는 여러 가지 놀이로서 전통성, 역사성, 고유성, 지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 속에는 전통사회가 기르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놀이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정놀이 속에서 나의 존재를 인식하며 부모, 형제, 친지와 하나가 되고, 친구들과의 놀이를 통해 삶의 영역을 넓혀 나가며 사회의 규범을 익혀갔던 것이다. 더 나아가 마을의 공동체놀이를 통해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역군으로 성장해 간 것이다.

어른들은 임산부에게 혹은 갓난아기의 엄마에게 “아기가 잘 노는가?”하고 묻는데, 여기에서 ‘논다’는 결국 ‘살아있다’와 ‘건강하다’를 뜻을 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흔히 쓰는 ‘사람 노릇’에서 ‘노릇’은 ‘놀+웃’의 합성어로 어간이 ‘놀다’의 ‘놀’이다. 즉 놀이는 요즘의 개념인 유희 이상의 ‘인간적 품성’이라는 의미까지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래는 ‘놀+으 |’에서 파생된 말로서 노래와 놀이는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가지고 싶어 자꾸 조르면 엄마는 ‘아주 노래를 불러라 노래를 불러’라고 하는데, 이 말은 노래 속에는 아이들의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놀이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하게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아이들 마음의 표현양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놀이는 놀이인원에 따라 혼자놀이, 짝공놀이, 여럿이놀이를 놀이장소에 따라 실내놀이와 야외놀이를 표현방식에 따라 말놀이,

노래놀이, 몸놀이, 흥내놀이, 놀림놀이 등으로 나뉘볼 수 있으며, 기구를 활용한 민속놀이 또한 아이들의 전래놀이에 포함된다.

전통은 지나간 과거 속에 묻힌 유물이 아니다. 전통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창조하는 힘의 원천으로서, 한국적 창의성 발현의 '샘'이며 현재에도 끊임없이 이 땅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 가치관, 신념, 행동양식 등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 국제화·세계화 시대에 전래놀이를 통한 아동의 정체성 함양은 세계 속의 한국 건설이라는 목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친구와 함께 전래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2012년도 교육)

## 2) 용어로 살펴 본 전통놀이, 민속놀이 그리고 전래놀이

### 가. 전통놀이

전통놀이는 대개 민속놀이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는 말이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큰 차이가 있다. 전통놀이는 놀이의 생성과정으로 살펴볼 때 그 원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놀이가 최초로 생겨날 때 그 골격을 지닌 놀이를 일컬으며, 이러한 전통놀이에는 그 원형적 특성을 바탕으로 놀이가 생겨난 시대적인 배경과 의식 그리고 삶의 형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으며 그 특성을 유지한 채 계승 변모하게 된다.

## 나. 민속놀이

민속놀이는 전통놀이가 계승 변모한 형태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전통놀이가 시대적 상황과 풍속에 영향을 주고 받으며 놀이 주체들에 의해 끊임없이 수정, 보완되고 새롭게 재창조된 형태를 일컫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놀이의 분류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민속'이라는 말의 특징에서 보여지듯이 지역성, 민간성, 향토성을 띤 것들로서 '각 지방의 풍속과 생활 모습이 반영된 민간에 전하여 오는 여러 가지 놀이'라고 정의하며 전통놀이와는 그 의미 범주를 달리하는 것이다.

## 다. 전래놀이

전래놀이는 현대놀이와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모든 놀이(궁정놀이, 외래놀이 중에 우리 나라화 된 놀이까지 포함)를 지칭한다. 따라서 '놀이'에 대한 미시적 관점의 '전통놀이'와 거시적 관점의 '민속놀이' 모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이는 곧 현대 놀이 또한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되어 일정한 시기를 거쳐 후대에서도 계속하여 놀아진다면 전래놀이로 전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3) 전래놀이의 생성과 배경

수천 년의 삶을 이어오는 과정에서 놀이 문화를 창조하고 그 전통을 지켜온 우리 민족에게 전래놀이는 재미와 흥미를 바탕으로 오락성을 띤 놀이의 형태를 빌어 그 당시 사회가 중요시하고 기르고자 했던 신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전래놀이의 생성 배경적 측면에서 단지 재미와 즐거움을 찾기 위한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사회의 신앙과 가치관, 효율적이고 보다 새로운 생산을 위한 준비와 기원이 담겨져 있음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즉, 전래놀이는 어제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성과 전통성을 떠나서 이해할 수 없으며, 민족문화로서의 고유성은 물론 즐기차게 전승되는 놀이로서의 지속성을 지니지 못한다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래놀이의 생성배경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① 놀이를 통한 공동체 의식의 함양

전래놀이의 대부분은 함께 즐기는 형태로 구성되어있다. 작게는 또래친구나 크게는 마을과 마을의 이웃 등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는 단위를 대상으로 함께 놀이를 즐기므로써 일상적인 생활의 단조로움을 벗어나 정서적으로 위안을 받으며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로서의 삶의 공유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

### ② 제의적 형태의 신앙으로부터의 발전

본격적인 농경생활이 시작된 이래 자연과 공존하며 조화로운 삶을 영위해 온 우리 민족에게 신앙은 곧 자연과 인간의 합일된 생존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삼한시대에서부터 행해온 다양한 제천의식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 행해지고 있는 다양한 공동체적 제의와 신앙의 형태는 종교적 측면에 머물지 않고 모두가 어우러져 함께 즐기는 놀이적 측면으로 확대됨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통사회에서의 일종의 제사 의식에서 비롯된 놀이적 요소가 세월을 거쳐 거듭되는 과정에서 원래의 의도가 점차 줄어들며 오락적 요소가 증대되며 전래놀이로 정착, 발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신분 구조의 유지와 정착의 수단

전래놀이는 일반 서민이 즐겼던 놀이, 양반이 즐겼던 놀이, 궁중에서 즐겼던 놀이처럼 다양한 신분적 차등에 따라 구분되어 있었다. 사회 신분적 측면뿐만 아니라 남녀유별, 장유유서 등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여 아동놀이와 성인놀이, 남자놀이와 여자놀이 같이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서도 구분되어진다. 이는 곧 놀이가 당시 민중 문화로서의 역할은 물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지배 문화를 대변하며 정착시켜온 중요한 표면적 요소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④ 군사적 방편으로서의 활용

전래놀이의 대표적인 것으로 ‘비석치기’를 들 수 있다. 돌을 던지거나 혹은 쳐서 맞추는 놀이인 비석치기는 투석전(投石戰)을 재현한 것으로서, 조선조 후기까지 실전 연습을 위해 매년 단오날에 대동강변에서 행해졌던 보신술이었다. 이러한 형태가 조선말에 이르러 석전희라는 세시 풍속놀이로 계승되었다가 차츰 아이들을 위한 놀이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전래놀이는 나름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생성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되고 그 형태를 달리하면서 다시금 다듬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만든 이가 명확하지 않고 만들어진 시기 역시 대강 유추할 수 있을 뿐이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과 생각에 의해 점차 다듬어지고 발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친구들과 함께 국궁체험을 즐기고 있는 모습 (2012년도 교육)

### Ⅲ 전래놀이의 교육적 가치

전래놀이는 전통사회가 처한 독특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고유의 가치관과 공동체적 삶의 양식들을 수용하며 발전해 왔다. 특히 아동이 속한 문화적 배경과 깊은 관련을 맺으며 성인놀이와는 대비되는 아동놀이들을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는 가족 중심의 농업경제시대였던 전통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장차 미래의 주역인 아동으로 하여금 고유한 가치를 지속시키고 공동체 사회를 유지함과 동시에 생산활동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긍정적 토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래놀이는 단순한 놀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가치의 공유, 전통과 미래의 자연스러운 연결, 공동체적 삶의 원활한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 1)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 함양

전래놀이는 고유의 역사적 관습, 계절, 기후나 특성 등이 모두 반영되어 있기에 우리의 체질이나 신체조건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행해온 공동체적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적 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고유의 문화 인식과 역사성을 되새겨줌으로써 세계 속에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시킨다.

#### 2) 풍요로운 정서 함양과 자아 존중감의 발달

아동이 전래놀이를 통해 느끼게 되는 기쁨, 즐거움, 성취감 등의 감정은 긴장감과 갈등을 해소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서를 함양하게 한다. 특히 전래놀이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과 긴밀한 상호작용을 맺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만남은 서로에 대해 긍정적인 유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소중하고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여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자아 존중감을 발달시키게 된다.

### 3) 신체적 건강과 운동 능력의 증진

전래놀이는 주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는 신체 활동들이 많다. 온몸을 움직이며 한 겨울에도 땀을 흘리며 즐겁게 놀이를 즐기므로써 기초 체력을 기르게 되고 근육운동 능력, 눈과 손의 협응, 균형 감각, 리듬감 등 균형적인 신체 발달을 이룩하게 된다.

### 4) 언어(국어) 발달의 촉진

전래놀이에는 놀이의 흥을 돋우기 위해 또는 놀이의 진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서 고유의 전래동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노래는 아동의 성장기별 언어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기에 노래를 부르면서 다양한 어휘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함으로써 언어 표현력이 발달하게 된다.

### 5) 인지발달의 촉진

아동은 다양한 전래놀이를 통하여 수, 공간, 시간, 거리, 높이, 분류, 서열화 등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고 사고력이 발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인이라면 보편적으로 즐겨온 윷놀이의 경우 수세기, 포함관계, 공간개념과 같은 논리 수학적 개념과 윷가락이 흩어지는 모양 등에서 물리적 지식까지 습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전래놀이는 문화적 가치뿐만 아니라 신체/언어/인지 능력 등 전인적 발달, 원활한 대인관계와 자아 존중감 향상 등의 정서적 발달 등 긍정적인 자아관과 심리적 안정감, 균형적인 신체발달을 가능하게 함은 물론 개인 및 사회적 행동 규범의 학습, 사회 구성원간의 동질성을 확립시켜 협동심과 단결력을 갖게 하는 등 많은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제 1 장 교육의 배경

### II. 현대생활과 예절(禮節)

1. 예절(禮節)의 의미 / 28
2. 현대 생활에서의 예절(禮節) / 34

## I 예절(禮節)의 의미

### 1. 예절이란 무엇인가?

#### 1) 예절의 의미

예절이란 생활문화의 전통 속에서 형성된 도덕성에 근거한 사회적 질서의 규범 및 행동의 표준절차 등을 일컫는 말로서 예의범절(禮儀凡節)의 준말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예의(禮儀)'란 '사람과 사람의 교류에 있어서 서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애하는 정신을 나타냄으로써 공동생활의 조화와 질서를 촉진하는 규범이나 관계'를 의미하며, '범절(凡節)'이란 '수천 년의 생활 속에서 사람 관계를 원만히 하고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만들어 낸 지혜의 산물인 모든 일의 순서와 절차'를 뜻한다.

따라서 예절이란, 특히나 '예(禮)'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문명적인 행위로서 국악의 정치제도, 사회의 도덕가치, 민족정신, 예술심리, 풍속습관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의 조화로운 관계를 지향하는 지극히 넓은 문화적 범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예절을 문화적 측면에서 해석할 때, 문화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에 적응하는 개인들로부터 그 형태를 갖춰오며 발전한 것이기에 문명을 가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국가가 자기들만의 문화, 즉 예절을 가지게 된다. 그렇기에 예절은 각각의 문화권마다, 혹은 국가별로 그 형태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있는 모든 곳에 존재하며 'Etiquette, Manner, propriety, decorum, protocol'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것이다.



## 2) 예절의 기원과 발전

한자문화권이었던 동양에서의 예절은 ‘예(禮)’라는 글자를 풀어봄으로써 그 기원을 엿볼 수 있다. 중국 후한시대의 허신이 편찬한 문자 해설서인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는 ‘예(禮)’라는 글자는 ‘시(示)’와 ‘풍(豐)’으로 구성된 글자이며, ‘시(示)’는 또다시 ‘이(二)’와 ‘소(小)’를 합친 글자로서-‘이(二)’는 본래 ‘상(上)’을 뜻하며 ‘소(小)’는 ‘상천(上天)’으로부터 일(日), 월(月), 성신(星辰)의 빛으로 계시한다는 뜻- ‘신’ 또는 ‘절대자’를 상징한다. 또한 ‘풍(豐)’자는 ‘곡(曲)’과 ‘두(豆)’를 합친 글자로 ‘두(豆)’는 제사음식을 담는 그릇(祭器)이고, ‘곡(曲)’은 그 그릇에 풍성히 담겨진 제물을 형상화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곧 제기에 제물을 넉넉히 담아 신에게 봉헌하는 제사 의식에서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제사 의식에서는 정성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겨 부정한 것을 꺼리고 신성한 시공간을 지향하는 다양한 금기의 관습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종교적 ‘금기(禁忌/taboo)관념’은 인간의 합리적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점차 세속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예(禮)’는 종교적 의례의 의미와 사회적 인간관계를 규제하는 ‘의(儀)’로서의 도덕적 의미가 결합되어 발전하게 되며 점차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 사람이 지켜야 할 올바른 것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낸 행동규범’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서양의 경우, ‘특정 집단의 기풍 또는 관습’을 뜻하며 윤리의 어원인 그리스어 ‘ethos’와 ‘집단생활에서 구성원의 태도나 행동을 규제하는 집단행동준칙’으로서의 도덕’을 가리키는 라틴어의 ‘mores’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이 살기에 익숙해진 토지에 따른 공동의 관습’과 연관된 것으로서, 결국 서양의 예절은 어떤 특정 집단구성원들이 동일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행위양식인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서양의 예절도 ‘고례(古禮)’는 제정시대의 종교적 의례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서양의 고대인 역시 자연을 중요시했고 자연의 힘이 모든 생명체를 지배한다고 믿었기에 자양의 힘을 믿지 않고 금지된 행위를 자행하거나 신성성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면 무서운 보복을 당한다고 믿었는데, 이러한 관념이 바로 taboo, 즉 금기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중시하며 인간의 행위를 규제함에서 발행한 이러한 서양의 예절은 근세에 걸쳐 인간중심 윤리로 변화되며, 최근에는 기술과 기계적 측면이 우선시되어 가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동양과 서양의 '예(禮)'는 모두 신과 인간과의 신성한 종교의례에서 비롯되었고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보편적인 세속의례로 진화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상하관계, taboo 등이 생활의 약속 또는 관습이 되고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규범과 제도로 발달하면서 오늘날의 예절로 이어온 것이다.

### 3) 성인과 고전을 통해 알아본 동양의 예절

#### ① 공자(孔子) - 극기복례위인(克己復禮爲仁)

공자는 인간 최고의 덕목인 '인(仁)'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는 '극기(克己)'와 예를 회복하여 실천하는 '복례(復禮)'를 제시하였다. '예(禮)'와 '인(仁)'을 동일시하고 예를 인간 도덕성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이자 목표로 제시한 것이다.

#### ② 맹자(孟子) - 사양지심예지단야(辭讓之心禮之端也)

맹자는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고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 곧 예라고 하였다. 나부터가 아닌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내세우기 보다는 남을 앞세우는 것. 내가 조금 힘들지라도 남에게 양보하는 것이 바로 '예(禮)'이자 '사양지심(辭讓之心)'인 것이다.

#### ③ 순자(荀子)

순자는 예를 인간사회에서 각자의 분수를 한정짓는 기준으로서 객관적 규범으로 파악하고 인간 성품의 악함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④ 예기(禮記) - 인유예즉안(人有禮則安) 무예즉위(無禮則危)

예기(禮記)에는 예의 필요성과 실천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사람이 예가 있으면 편안하고, 예가 없으면 위태롭다. 그렇기 때문에 예는 배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무릇 예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5 『태교신기(胎教新記)』에서의 '예(禮)'

조선 최고의 육아서로 손꼽히는 『태교신기』는 조선 정조 때 실학자인 유희의 어머니인 사주당 이씨가 저술한 교육학서이다. 이 책에는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孔子)'고 하여 예(禮)에 근거한 철저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였다.

### 6 『소학(小學)』에서의 '예(禮)'

소학(小學)에서는 예(禮)를 일컬어 앉고 일어서는 행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상생활 내지 사회생활의 도덕적인 규범으로 강조한다. '문을 나가고 들어갈 때는 어린이가 어른의 뒤에 서고, 모임이 있을 때는 어른이 윗자리에 앉고 어린이가 아랫자리에 앉으며, 음식을 먹을 때 어른이 먼저 먹고 어린이가 뒤에 먹는 것은 어린이가 어른에게 사양함으로써 어른과 어린이의 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이다'

## 2. 예절의 목적과 특성

### 1) 예절의 목적과 기능

예절은 불가피하게 공동생활을 영위해가는 인간 상호간에 절도를 지킴으로써 자신에게는 떳떳하고 남에게는 편안함과 기쁨을 주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겁고 명랑하게 조화를 이루며 화합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이란 사회의 한 개체로써 둘 이상의 개체와 어울려 살아야 함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인간 본연의 무한한 욕심과 욕구를 절제하고 스스로 사회가 요구하는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생활방식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는 것이다. 즐겁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한 자발적인 자기관리가 있어야 어엿한 한 명의 사회인으로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고 또한 그것이 선행되어야 사회와 국가의 질서와 화합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기에 스스로 마음가짐과 행동을 다스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남에게 정성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이룩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예절은 안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작용하며, 밖으로는 남에게 활용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래의 표와 같이 예절의 기능적 측면을 정리할 수 있다.

기 능	목 적	방 법	결 과
자기에게 작용하는 것 "수기(修己)"	자기관리	정성, 삼가	양심, 떳떳함
타인에게 작용하는 것 "치인(治人)"	대인관계	공경과 사랑 -상대방을 편하게	조화, 화목, 기쁨
모두에게 작용하는 것 "공동체 의식"	공동체의 삶	정성, 공경, 사랑, 질서, 화목	평화, 질서, 인류애



## 2) 예절의 특성

예절은 한 사회의 고유한 의식과 특성을 대변하는 문화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 특성과 그 범주를 함께 한다. 문화란 인간이 집단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삶이 표현하고 있는 행위는 물론 그 행위가 이루어내는 모든 과정의 사고 체계와 그에 관련된 삶의 현상 모두를 일컫는다. 따라서 문화의 체계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동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질서의 체계라고도 할 수 있다.

예절 또한 문화의 한 범주로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동체 삶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작용함과 동시에 일상적인 현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인정해나가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곧 한 사회가 바탕으로 하는 특수성을 토대로 그 사회 구성원들의 행위 기준을 제공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대와 장소에 따른 다양한 고유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예절은 인륜(人倫)으로서 누구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세계적 보편성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적 영역에 따른 특수성과 상대성을 갖게 되며, 직간접적인 교육을 통해 학습되고, 이전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세대를 거쳐 전승되며,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며 살아있는 '예절(禮節)'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다.



## II 현대 생활과 예절(禮節)

### 1. 현대생활의 특성과 변화

#### 1) 현대사회로의 변화와 가치 혼란

과거 우리나라의 예절은 개인이나 가족중심인 '가례(家禮)'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농업중심 전통사회의 특성으로 정치,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가족 또는 씨족 중심의 지배적 사회구조 아래에서 형성된 우리나라의 고유한 특수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후기 산업사회를 거치며 현대 사회는 개방화에 따른 다양한 사회관계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어 개인이나 가족 중심의 예절을 넘어 보다 넓은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예절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예절의 변화 요구는 현대 사회가 갖는 다양한 특징들로부터 기인하며, 우리나라에 있어서 급속한 현대사회로의 변화는 과거 예절방식의 중심에 있던 '가족'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곧 현대 사회에 있어서 새로운 예절방식 혹은 예절교육에 관한 사회적 관심의 중요성을 대변하는 요소로서 현대 사회가 갖는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현대사회의 특징】

- ① 농경사회 ⇒ 후기 산업사회
- ② 공동체적 인간관계 중심 ⇒ 개인주의적 이익집단 사회
- ③ 대가족 중심 ⇒ 핵가족 중심
- ④ 가부장적 사회 ⇒ 남녀평등 사회
- ⑤ 정보화/대중화 사회
- ⑥ 물질 우선주의 성향과 비인간화 현상의 팽배
- ⑦ 인간 소외 현상의 심화

이렇듯 현대사회는 변화의 속도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사회/문화적으로 혼란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변화는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예절에 점차 소홀해지고 무관심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반면 현대 생활에 적합한 새로운 풍습이 형성되고 외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형성된 그들만의 풍습이 여과 없이 유입되어 많은 현대인들이 이를 모방하게 되어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 2) 생활양식의 변화와 예절

우리나라 전통사회는 농경과 유교를 양축으로 하는 봉건사회였고, 농업은 가사 노동력에 의존함으로써 가족은 곧 생산의 단위이자 소비의 단위였다. 또한 개인은 가족 구성원의 일원으로 가족이 안전하면 사회가 안전하고, 사회의 안전은 곧 국가의 안전이라는 공동체적 사회철학에 근거하여 왔다. 이러한 삶의 양식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여 사회, 더 넓게는 국가에 이르기까지 일관적인 교육의 기능이 가능케 하였는데, 가정에서 배운 것이 사회생활에 확대되어 가정의 윤리가 바로 사회의 윤리였고 가정의 도덕이 바로 사회의 도덕으로 안정적인 확대를 이루었던 것이다.

따라서 생활의 근원이자 삶의 최소단위로서의 가정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대인관계의 질서, 예의, 규범 등을 학습하는 교육의 장이었고, 사회철학으로서의 유교 윤리 또한 가정예절(家禮)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다양한 통과의례(관혼상제, 冠婚喪祭)를 통해 도덕교육 및 윤리교육을 담당해 온 것이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의 물결로 인해 점차 핵가족화되면서 가례(家禮) 중심의 예절방식의 붕괴를 초래함으로써, 대가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왔던 인간관계에 관한 기초 학습의 기회가 사라지고 원거리에 살고 있는 친족들과의 교류가 약화되며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심리적 지원과 상호부조의 정신이 동시에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구적 생활과 산업화된 직업형태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사회생활 중심의 인간관계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례(家禮)를 넘어서 보다 폭넓고 복잡한 사회예절의 습득이 요구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으로 잉태된 정보화와 개방화,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한 대중화의 영향은 문화생활의 영역을 광범위하게 넓힘으로써 문화적 측면에서의 예절도 중시되게 되었다.

## 2. 현대생활과 예절교육

### 1) 현대생활과 예절의 새로운 가치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나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익혀온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또한 습관은 한 번 몸에 익으면 처음 익힐 때처럼 별다른 의식이 필요 없이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사람의 습성은 어제와 오늘, 과거와 현재를 불문하고 인간의 삶이 영위되는 곳이라면 어느 때, 어느 곳이던지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대생활에서의 예절은 여전히 중요한 삶의 방식이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한 양식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생활에서는 오히려 예절의 가치가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 기인하여 전통문화와 전통예절의 전승에 관해 그리 자연스럽지 못한 실정이다. 민족문화가 현대문화의 바탕이라는 의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될 틈도 없이 서구의 문화를 여과 없이 들여오고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좀 더 시간이 들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며 기다리기보다는 혼자서라도 사회, 경제, 문화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애써왔다. 또한 경제 부흥의 기치아래 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채택은 가치 교육 보다는 지식중심의 교육을 전담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세대들에게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적 가치관과 전통을 토대로 살아온 삶의 방식들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요즘 들어 우리나라가 가진 이러한 현대화의 특수성 아래 잊혀져가던 정신문화, 생활문화로서의 ‘예절(禮節)’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핵가족화, 도시화 된 삶 속에서 오로지 자신들만을 중시하던 개인주의와 지식중심의 교육 형태에서 점차 이웃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함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올바른 인성을 갖추고 현대 생활에 적합한 조화로운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 인재들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복잡한 사회관계와 직업군상 속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활해야함을 다시금 되새기며 공공예절을 중시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문화적 활동에서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본 생활 예절 함양에 애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형성된 고유의 문화적 바탕이 현대 생활을 영위해가는 현대인들에게도 오롯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음을 대변하며, 삶의 양식은 변화하였지만 요즘 시대 역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임에는 틀림 없는 것을 증명하기에 ‘예절’은 어제가 아닌 오늘 다시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 2) 현대생활에서의 예절의 나아갈 방향

### ① 현대생활에 적합한 공동체 삶의 반영

과거 우리나라 예절의 중심이었던 가례(家禮)의 폐쇄적인 측면을 벗어나 현대사회에 필요한 다양한 사회관계를 올바르게 뒷받침해주며, 개인이나 가족 중심의 예절이 아닌 요즘 시대에 필요한 시민의식 함양과 새로운 공동체적 삶의 양식에 어울리는 형태로 변화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 ② 동양과 서양의 적절한 조화

동양의 예절과 서양이 예절은 서로가 표현해온 행동 양식이 다를 수 있다. 현대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교류가 행해지고 있는 만큼, 동서양의 예절을 조화롭게 취사선택하여 우리 실정에 맞게 실천함으로써 세계화의 추세에 부응하고 인류에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전통과 현대의 올바른 전승

전통예절을 무비판적으로 비난할 것만이 아니라 현대적 생활양식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형 적용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예절이란 인간생활 속에서 서로의 원만한 삶을 위한 약속인 만큼, 과거의 전통예절을 현대 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전승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더욱 조화롭게 할 수 있다.

### ④ 예절교육의 중요성 인식과 지속적 실천

예절도 습관에 의지한다. 이는 곧 예절 또한 끊임없이 반복하여 시행하여야 습관화할 수 있고,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교육에서부터 출발하여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품성과 자세를 익히고 점차 그 범위를 넓혀나가며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학교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바탕에는 부모들이 모델이 되어 제시해주는 항상 삼가는 마음, 공경하는 태도 등 예절의 기초교육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 제 2 장 교육의 실제

### I. 교육의 구성

1. 교육 구성의 배경과 목표 / 39
2. 교육구성의 방향과 콘텐츠 도출 / 43

## I 교육 구성의 배경과 목표

### 1. 교육 구성의 배경

#### 1) '전래놀이'와 '예절'의 상관관계 이해

##### ① 전래놀이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인식

놀이는 아동의 생활 그 자체이며 가장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활동이면서 동시에 학습의 수단이 된다. 즉 놀이를 통해서 자기 자신과 타인, 환경세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므로 놀이가 곧 학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놀이는 사회, 정서, 인지, 신체, 언어발달 등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발달들은 분리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아동기 이후의 전반적인 발달에까지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놀이의 보편적 효과는 전래놀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고유의 문화로서 전래놀이의 특수한 기대효과까지 가미하게 된다. 즉, 전래놀이가 내포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세시 풍속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등 '나'를 둘러싼 세계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국가에 이르기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 의식, 자기 자신을 올바른 주체자로 인식하며 존중하는 긍정적 자아 존중감의 형성 등 아동의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를 두루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래놀이의 효과적 측면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이 바로 전래놀이에 내포된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놀이과정 중 오고가는 대화와 행동, 놀이노래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를 관계시켜 주며 놀이를 통해 자신을 탐구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제 세계에 적응시켜 나가는 능력을 길러주게 된다. 이를 통해 '나'라는 개체 하나가 혼자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친구들의, 가족의, 학교의,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들과 함께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다.

전래놀이 속에 들어있는 있는 이러한 의식의 발전적 측면은 '전래놀이'와 '예절'이 한국의 고유한 문화적 토대위에서 맞닿아 있음을 나타내기에 예절의 본질적 요소와 결부하여 '전래놀이와 예절의 연계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 2] 예절의 본질적 요소와 전래놀이의 연관성

예기(禮記)에서 표현하는 ‘도덕과 인의도 예(禮)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처럼 ‘예(禮)’란 오래전부터 인격 형성의 핵심적 요소인 동시에 사회 질서의 기본 원리로 여겨져 중시되어왔다. 즉, 눈으로 보이지 않는 본질과 정신으로서의 ‘예(禮)’는 곧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표현방식으로서의 ‘절(節)’과 결합되어 ‘공경하는 자세’, ‘정성스러운 태도’, ‘겸손한 말투’ 등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일치된 삶의 원리를 체득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절이 갖는 두 가지 기능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수기(修己)’는 그야말로 자기 수양으로서 스스로 사람다운 행동을 하기 위해 부단히 모든 면(말, 행동, 표정, 마음씨)을 바르게 닦고 관리하는 것이며, 타인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 자신에게 적용하던 예절을 밖으로 표현하여 남에게 활용하는 ‘치인(治人)’은 곧 자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타인에게까지 확장하며 서로가 기쁨을 얻음으로써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절은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중’을 시작으로 ‘자신을 둘러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인식해나가며 ‘나’와 ‘남’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간답게 산다’라는 말은 먹고, 쓰고, 입는 물질적 측면보다는 ‘나와 남에 대한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구현’을 통해 올바른 공동체를 실현하며 살아야 함을 일깨워주는 ‘예절’에 관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예절 또한 ‘자신에 대한,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관계’에 대한 적합한 표현방식이 필요함을 자각해야 한다. ‘인간이 지켜야할 행동규범’이라는 당위적인 말로써 이해하기 보다는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자아 존중’에서 ‘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한 배려와 존중’에 이르기까지 삶을 살아가는 인간 본연의 자세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예절’ 또한 ‘전래놀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래놀이 속에서 펼쳐지는 작은 아동 세계에서 학습되어지는 ‘규칙에 대한 이해’, ‘자신이 추구하는 욕구에 대한 인식’과 ‘욕구 절제를 통한 친구에 대한 배려’ 등의 모습은 곧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겪게 되는 보다 큰 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예절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 2) 현대생활에서의 여가의 다양성과 '놀이'의 확대 이해

현대생활은 다양한 분야의 축적된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여가 활동 또한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접하게 되는 대중매체를 통하여 세계 각지의 소식과 사람살이에 관한 정보가 봇물처럼 쏟아짐은 물론 공연, 체험, 현장 학습 등 다양한 놀이적 문화 활동의 기회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사회 속에서 행해져왔던 '전래놀이'와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만큼 새로운 여가와 놀이 향유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요구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오래 전부터 일상의 삶을 탈피하여 즐거움과 휴식을 얻어왔던 '전래놀이'의 세계는 이러한 현대 여가생활과 맞물려 점차 잊혀지고 있지만, 놀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현대생활에서 누려지는 다양한 여가활동에서도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즉, '놀이를 통한 휴식과 새로운 일상에 대한 활력소의 충전'이라는 목적은 동일하나 그 놀이의 형태가 산업화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화 되었고,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서구문물이 유입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놀이가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전래놀이'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놀이의 형태 변화는 얼마든지 수용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놀이의 원형을 의미하는 '전통놀이'나 계승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상황과 풍속에 영향을 받으며 변모한 형태를 의미하는 '민속놀이' 모두를 일컫는 개념으로서의 '전래놀이'는 비록 현대놀이와는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현대놀이 자체가 하나의 형식으로 정착되어 일정한 시기를 거친 후대에도 계속 놀아진다면 그 또한 하나의 '전래놀이'로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대생활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놀이문화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언제나 열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시대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 변하였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취하는 놀이 형태 또한 당연히 생활양식에 맞추어 변화함을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대인들이 누리는 다양한 여가활동들 또한 형태적 요소에 집착하지 말고 '전래놀이'가 가진 기능적, 효용적 측면을 접목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단순히 앉아서 관람만 하는 공연보다는 관객이 함께 참여하여 즐기는 놀이적, 체험적 요소가 포함된 공연이 보다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은 세시 풍속에 맞춰 행해져 왔던 우리 고유의 놀이 문화가 현대의 공연문화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생활의 여가 생활 확대와 놀이의 다양한 변화와 발전 양상들 또한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전래놀이'의 현대적 수용과 발전적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집중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야 한다.

## 2. 교육의 목표 설정

### ① 놀이로 형상화하는 재미있는 교육을 통한 실생활 예절 습득

전통예절에 관한 단순교육이 아닌 놀이를 통해 예절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들을 형상화하여 학습 효과를 확대하고, 현대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상황들을 중심으로 제시함으로써 예절의 필요성을 스스로 발견하고 공감할 수 있다.

### ② 전래놀이의 공동체성에 대한 현대적 의미와 가치 재조명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익혀왔던 지역적 고유성과 역사성 인지 및 놀이를 통한 또래집단에서의 사회성 향상 등 전래놀이가 내포하고 있는 “공동체성”에 관한 현대적 필요성을 바탕으로 “놀이”에서 시작하여 “관계”에 대한 자연스러운 학습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 ③ 공동체 활동으로서의 전래놀이의 학교 현장 보급/활성화

개인화 되어버린 현대의 놀이가 아닌 친구들과 함께 즐겨왔던 고유의 전래놀이를 알려줌으로써 놀이를 통한 다양한 관계성을 발견하고 오늘날의 어린이들이 학교 및 교우관계 속에서 새롭게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



※ 모두가 함께 전래놀이를 즐기고 있는 모습 (2012년도 교육)

## Ⅱ 교육 구성의 방향과 콘텐츠 도출

### 1. 방향 설정

교육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지만 교육의 형태나 소재는 시대적 변화와 학습자의 요구 등 학습 환경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그 모습을 달리하여야 한다. '시대에 뒤쳐지는 교육'이 아닌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은 교육이 실현되어지는 소재나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적합한 교육적 소재를 발굴하고 학습자의 능력과 성장 단계를 고려하며, 효율적 학습이 지속가능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과 흥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교육 소재 도출의 원칙을 수립하였다.

#### ① '전래놀이'와 '예절'의 본질적 요소의 접합

'전래놀이'와 '예절'은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행해지는 행위이자 표현'이라는 측면에서 동일한 교육적 효과를 지닌다. 따라서 '전래놀이'나 '예절', 어느 한 곳이 우위가 아닌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통하는 교육'으로서 두 소재의 본질적 요소를 접합하려 하였다.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전래놀이'만을 배우거나 '예절'만을 배우는 교육이 아니라 두 가지 소재에 공통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관계'에 대한 측면을 자각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전래놀이'와 '예절'을 이해하고 현대생활에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자 하였다.

## ② 현대생활의 다양한 모습과 예절

현대 초등학생들은 수많은 예절교육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학교 현장에서 보다 강조되어지는 '인성교육'의 추세 속에서 기본적인 생활예절에 대한 수업과 교육은 더욱 빈번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본 교육을 접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예절수업'이라는 일반적 접근을 탈피하여 학생들이 직접 겪을 수 있는 현대 일상생활의 다양한 모습들을 접목함으로써 실제 생활과 교육의 일관성을 확대하고 예절에 대한 필요성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뿐만 아니라 놀이적 측면에서도 현대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목함으로써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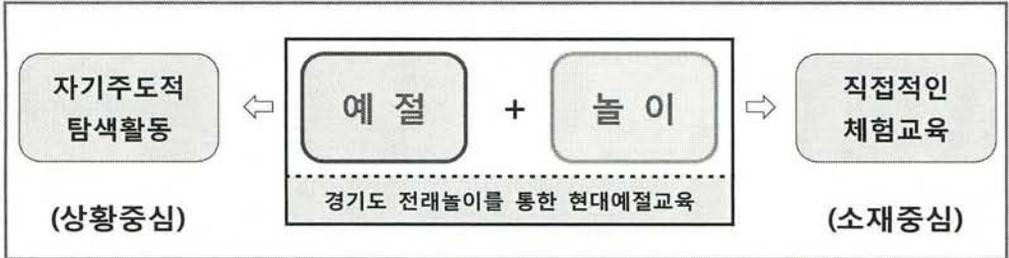
## ③ 놀이의 다양성과 현대 아이들의 학습 특성

교육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요즘 시대에 태어나 지금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아동들이다. 따라서 이미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고, 그들만의 소통 방식과 놀이에 임하는 방식이 있다는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자세를 함양하고 몰랐던 것을 알게 할 필요가 있으나, 본 교육 자체는 '놀이'를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일방적 교육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매스컴이나 통신도구를 활용한 게임에 젖어있는 요즘 학생들은 지속적인 자극을 요구하며 연령별 학습 발달의 차이로 집중력이 오래 가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을 진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 2. 교육의 방법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교육】



#### □ 자기주도적 탐색활동

예절에 관한 추상적 지식 획득이 아닌 예절의 의미와 사회적 필요성 등을 다양한 현대 생활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해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함으로써 체득하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였다.



#### □ 직접적인 체험교육

재료를 통한 만들기나 단순 체험에서 벗어나 소재를 통해 교육주제를 구현하고 교육에 부합하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의 통일성을 유지하여 학습자들로 하여금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3. 교육 콘텐츠 도출

#### 1) 예절 분야

예절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필요하다. 아동들의 경우 이러한 예절의 필요성을 각각의 단위 예절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사예절, 식사예절, 언어예절 등 특정 상황의 예절로만 학습하고 인식하기에 그에 어긋나는 상황이 펼쳐질 경우 쉽게 당황하고 심지어는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도망쳐버리기 일쑤다.

따라서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고 예절에 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황을 제시하되 학생들이 생활하는 일상들을 반영하여 예절은 단편적인 상황적 대처가 아니라 꾸준히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는 과정 속에서 상황마다 적절한 표현을 동반해야함을 일깨우고자 하였다.



- 【공간과 예절】** ① 가정 - 자기 존중과 예절  
 ② 학교 - 수업시간의 예절  
 ③ 사회 - 공공장소의 예절

- 【관계와 예절】** ④ 관계 - 친구사이의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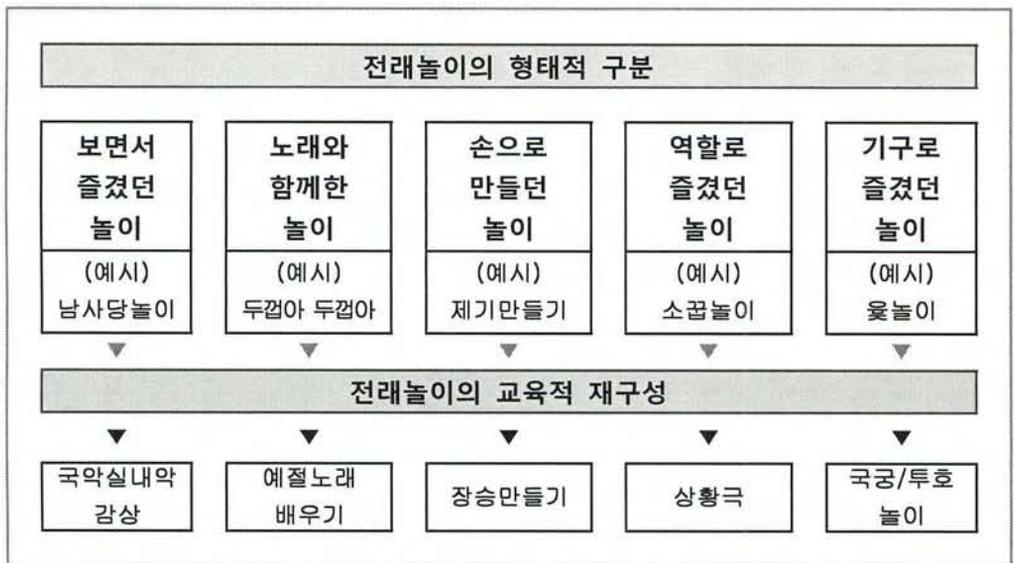
- 【일상생활과 예절고민】** ⑤ 생활 - 일상생활과 예절

## 2) 놀이 분야

놀이는 일상생활과 구분되어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며, 특히나 아동들에게는 사회성을 익혀가는 중요한 학습 기회이다. 따라서 아동들이 어떠한 놀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영위하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은 요즘 현대 아이들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단초를 제공하며,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고려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의 아이들은 많은 문화적 혜택 속에서 자라나며, 학교에서의 현장 체험활동이나 가정에서 이뤄지는 부모님과 다양한 여가활동 등을 통해 전래놀이와는 구분되지만 많은 현대놀이 활동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오히려 전래놀이를 접함에 있어 자칫 단순하고 재미없는 놀이로만 여길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생활에 따른 다양한 놀이형태의 변화를 전래놀이와 구분지어 비판적으로만 다가설 것이 아니라 적절한 접점을 모색하고, 오히려 아이들이 흥미와 재미를 가지고 다가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제시하는 적극적인 교육 자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아이들의 직접적인 삶을 토대 위에서 제시되는 놀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고자 본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 본 구성표의 전래놀이에 대한 형태적 구분은 교육 제시를 위해 임의로 선정한 것임.

## 제 2 장 교육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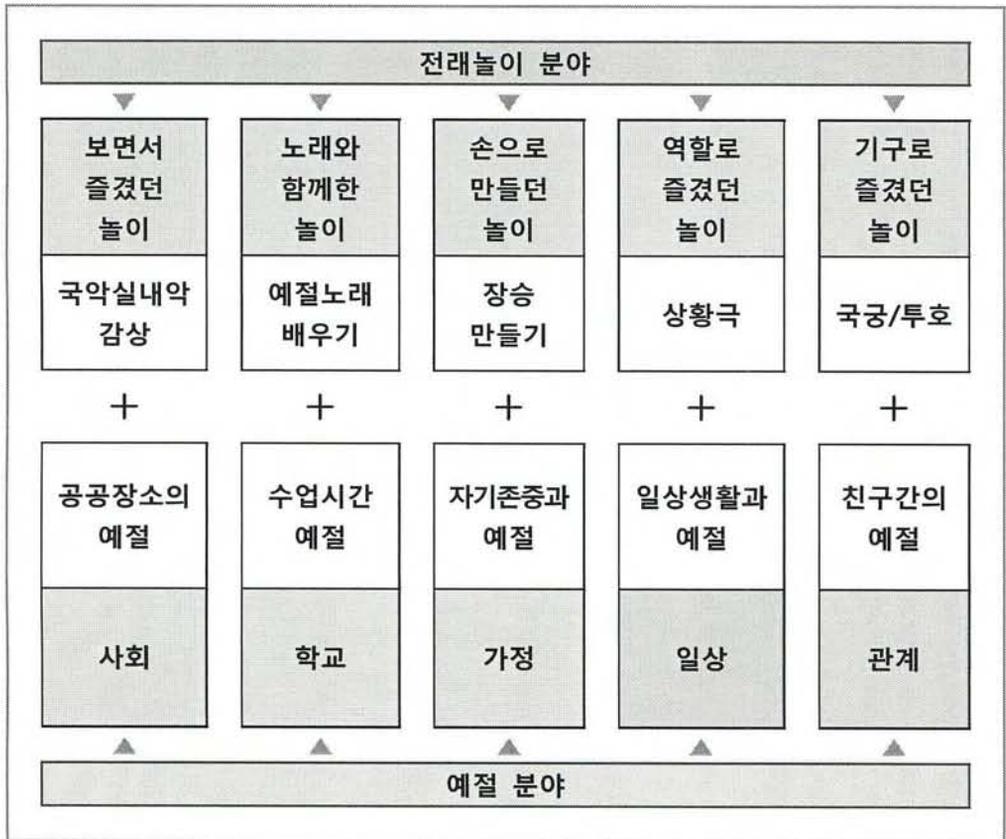
### Ⅱ. 교육의 진행

1. 교육 프로그램 / 49
2. 프로그램별 교육지도안 / 52
3. 교육 진행자료 / 65

# I 교육 프로그램

## 1. 교육 프로그램 구성

### 1) '전래놀이'와 '예절'의 결합



## 2)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 (150분 기준)

시 간	교 육 주 제	교 육 목 표
10'	교육 안내와 도입	교육일정 안내 및 놀이와 예절의 관계
40'	공공장소의 예절과 국악실내악 감상	올바른 공연 감상법과 공연장에서 지켜야할 예절에 대해 알아봅시다.
15'	수업시간의 예절과 예절노래 배우기	재미있는 예절 노래를 배워보고 수업시간에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할지 알아봅시다.
30'	자기 존중과 꿈나무 장승만들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예절의 시작임을 알고 꿈나무 장승을 통해 자신의 꿈을 표현해봅시다.
25	일상생활의 예절과 상황극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예절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시다.
20'	친구간의 예절과 전래놀이 즐기기	재미있는 전래놀이를 즐기며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하는지 알아봅시다.
10'	마무리와 설문지 작성	교육 마무리 및 설문지 작성

## 3) 교육강사 편성

프 로 그 램	인원	소속 / 담당 분야
총괄 강사	1	○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팀장 ○ 교육 총괄진행 및 주강사
국악실내악 공연	7	○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상임단원 ○ 국악실내악 공연
예절노래	1	○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상임단원 ○ 국악실내악 공연진행 및 예절노래 강사
장승만들기	3	○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우리문화체험단
상황극		
전래놀이		
<b>총인원</b>	<b>12명</b>	

## 2. 2012년도 교육진행 현황

차수	지 역	대 상 기 관	학 년	인 원
1	이천	도암초등학교	4학년	46명
2		송곡초등학교	전교생	54명
3	동두천	사동초등학교	5학년	74명
4		동두천 해바라기 재능유치원	7세	50명
5	오산	원당초등학교	5학년	44명
6		운산초등학교	6학년4반	29명
7		오산문화원	초등혼합	32명
8	광주	별원초등학교	4학년	52명
9		대전초등학교	4~6학년	41명
<b>총괄</b>		<b>교육총원</b>		<b>422명</b>

## II 프로그램별 교육 지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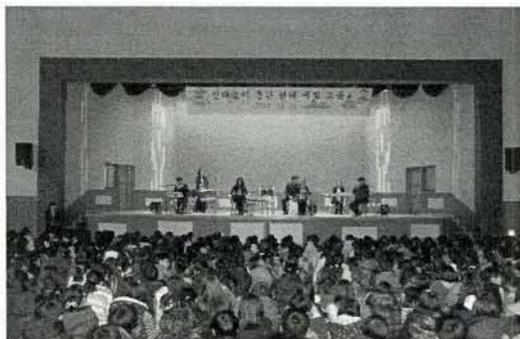
### 1. 공공장소의 예절과 국악실내악 감상

#### 1) 교육 지도안

주 제	공공장소의 예절과 국악실내악 감상	연 령	초등학생	시 간	40분
		장 소	강당 및 공연장		
교 육 목 표	1. 공공장소의 예절의 종류와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국악실내악 감상을 통해 효과적인 공연 이해와 올바른 공연예절을 알 수 있다.				
강 사 구 성	예절강사 1인, 국악실내악 공연단 1팀				
준비물	교육 팸플릿, 펜				

단 계	내용 및 활동
도 입	① 공공장소의 종류와 지켜야하는 예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② 공연장에서 공연 관람을 해 본 경험과 자신이 생각하는 공연장 예절 및 불쾌했던 경험을 이야기한다.
전 개	① 국악실내악에 대해 알아봅시다. 실내악이란 악기연주를 중심으로 5명에서 10명 안팎의 연주자로 편성되어 실내 혹은 작은 규모의 연주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일컫는 서양의 음악용어입니다. 따라서 국악실내악이란 국악기로 연주하는 소규모 공연 형태를 일컫는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악” 또는 “방중악”이라는 고유의 용어가 있습니다.  ② 효과적인 공연 감상법을 알아봅시다. <b>(공연전) 상상하기</b> 공연장에 비치된 자료들(리플렛, 팸플릿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연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나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미리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 어떤 노래들이 연주될까? 어떤 장면이 나올까?...

단 계	내용 및 활동
전 개	<p>③ 국악실내악 감상하기 - 실황연주</p> <p>④ 효과적인 공연 감상법을 알아봅시다. (공연후) 음미하기 &amp; 느낌 표현하기 공연을 본 후 조용히 눈을 감고 공연을 되짚어 보세요. 재미있었던 장면이나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떠올려보고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공연 전체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짧은 글로 적어본다면 더욱 유익하답니다.</p> <p>⑤ 국악실내악 공연 되짚어 보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떤 악기들로 연주했나요?</li> <li>❖ 무슨 곡들이 연주되었나요?</li> <li>❖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li> <li>❖ 공연 느낌을 10자 내외로 표현해 봅시다.</li> </ul> <p>⑥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서를 지키며 입장권을 삽니다.</li> <li>❖ 공연 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li> </ul>
마무리	<p>① 오늘 감상한 공연은 어떤 공연이었나요?</p> <p>② 효과적으로 공연을 감상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나요?</p> <p>③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하나요?</p>



※ 국악실내악 공연을 감상하고 있는 모습 (2012년도 교육)

## 2) 공공장소의 예절

### ① 전시장에서의 예절

- ① 화분이나 꽃다발을 가지고 갔을 때는 안내인의 지시를 받아서 처리한다.
- ② 차분히 감상하나 너무 느려서는 안된다.
- ③ 작품은 눈으로 감상하고 절대로 손대지 않기
- ④ '출입금지 및 사진촬영금지'는 꼭 지킨다

### ② 도서관에서의 예절

- ① 껌을 씹거나 신발 소리를 내지 않는다.
- ② 책을 소리 내어 읽지 않는다.
- ③ 소지품은 정해진 장소에 두고 들어간다.
- ④ 책에 낙서하거나, 책장을 접지 않는다.
- ⑤ 책장을 넘길 때 소리를 내지 않고 침을 묻히지 않는다.
- ⑥ 책은 반드시 제자리에 꽂아 둔다.
- ⑦ 책을 빌릴 때는 담당 선생님과 의논하고 기일을 꼭 지킨다.
- ⑧ 도서실에서 정한 규칙은 꼭 지킨다.

### ③ 유원지나 공원에서의 예절

- ① 시설을 아끼고 보호하며 휴지나 침을 함부로 버리거나 뺏지 않습니다.
- ② 잔디밭에 들어가지 않으며 꽃이나 나무를 꺾지 않는다.
- ③ 동물에게 함부로 먹이를 주거나 돌을 던지지 않는다.
- ④ 귀한 식물에 손을 대거나 꺾지 않습니다.
- 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 부르지 않는다.
- ⑥ 용변은 꼭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고 깨끗이 사용한다.

### ④ 차안에서의 예절

- ① 완전히 멈춘 후에 차례대로 천천히 탑니다.
- ② 차안에서 균것질을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 ③ 손잡이에 매달리거나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 ④ 차창 밖으로 휴지나 빈 병을 버리지 않고, 특히 침을 뺏지 않습니다.
- ⑤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 또는 어린 아기를 데리고 있는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합니다.
- ⑥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러운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 2. 수업시간의 예절과 예절노래 배우기

### 1) 교육 지도안

주 제	수업시간의 예절과 예절노래 배우기	연 령	초등학생	시 간	15분
		장 소	강당 및 공연장		
교 육 목 표	1. 수업시간에 지켜야 할 예절과 필요성을 알 수 있다. 2. 예절노래 배우기를 통해 예절의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알 수 있다.				
강 사 구 성	예절강사 1인, 국악실내악 공연단 1팀, 노래강사 1인				
준비물	교육 팸플릿, 펜				

단 계	내용 및 활동
도 입	① 수업시간에 지켜야하는 예절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다. ② 예절노래 가사를 통해 예절의 의미와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한다.
전 개	① 수업시간의 예절에 대해 알아보시다. ❖ 말할 때와 말 하지 않을 때를 잘 지켜요. ❖ 선생님께 정신을 집중해요. ❖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수업에 참여해요. ② 예절노래 가사를 읽어 보고, 예절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봅시다. ❖ 예절은 참된 마음입니다. ❖ 예절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 예절은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③ 예절노래 가사에는 어떤 잘못된 행동들이 나와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인터넷에 악플을 달아요. ❖ 친구들을 놀리고 왕따시켜요. ❖ 친구가 말할 때 잘 듣지 않고 계속 자기 말만 해요. ④ 예절노래를 배워 봅시다.
마무리	① 예절노래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② 수업시간에 지켜야할 예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 2) 예절노래 - 『예절은 마음이죠』 (악보자료)

2012 경기도 문화원 연합회 예절교육

### 예절은 마음이죠

모형오 작사  
모형오 작곡

♩ 동상품이 ♩ = 110

예 절 은 마음 이죠 참 되 고 사 랑 하 는 마음

매 려 하 고 너 그 러 운 마음 예 절 은 마음 이죠

1. 언 터 닷 을 켜 면 내 얼 굴 을 가릴 수 있 죠 하  
 2. 말 - 잘 - 못 하 고 공 부 잘 못 하 고 웃 잘 못 입 고 잘 난 처 하 고  
 3. 남 의 말 은 듣 기 싫 - 어 노니 내 말 은 길게 하 죠 예  
 4. 화 - 나 는 일 이 참 많 아 요 조금 도 참지 않고 버럭

아 무 도 모 를 기 란 생 각 에 막 말 을 하 고 욱 도 하 죠  
 그 런 전 구 보 - 면 - 무시 하 죠 양 따 - 시키 죠 - - 하  
 열 애 사 람 에 기 하 면 판 짓 해 요 내 에 기 할 때 판 짓 하면 싫어  
 내 가 불 려 한 - 건 - 싫어 - 싫어 나 건 - 드리 면 못 - 참 아

하 지 만 기억 해 요 내 스스로 가 지 키 보 고 있 다 는 걸  
 하 지 만 기억 해 요 우 리 - 모 두 같 은 사 람 이 죠 - - 하  
 하 지 만 기억 해 요 잘 들 - 어 야 좋 은 얘 기 할 수 있 죠  
 하 지 만 기억 해 요 불 려 한 - 해 도 참 고 기 다 러 야 죠 -

나 에 게 참 된 - 마음 예 절 은 마음 이 죠  
 모두 어 주 는 사 랑 의 마음 예 절 은 마음 이 죠  
 존 중 하 는 매 려 의 마음 예 절 은 마음 이 죠  
 기 다 리고 참 는 너 그 러 운 마음 예 절 은 마음 이 죠



### 3. 자기 존중의 예절과 꿈나무 장승 만들기

#### 1) 교육 지도안

주 제	자기 존중의 예절과 꿈나무 장승 만들기	연 령	초등학생	시 간	30분
		장 소	강당 및 교실		
교 육 목 표	1. 자신을 존중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이 예절의 시작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2. 장승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꿈과 희망을 표현할 수 있다.				
강 사 구 성	예절강사 1인, 보조강사 2인				
준비물	교육 팸플릿, 펜, 장승재료, 색연필, 목공풀				

단 계	내용 및 활동
도 입	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해 봅시다. ②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 개	① 자신에게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는 표현을 해 봅니다. ❖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칭찬하기 ❖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꼭 껴안아보기 ❖ 친구의 이름을 부르며 사랑해라는 말과 함께 껴안아 보기 ②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왜 예절에서 중요한지 이야기해 봅시다. ❖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어요. ❖ 자신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남을 항부로 대해요. ❖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에게 욕도 잘해요. ③ 장승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 동네 입구에 서 있는 무서운 나무조각이에요. ❖ 장승은 귀신을 쫓아주고 복을 불러와요. ❖ 장승은 남녀 한쌍이에요. ④ 자신의 꿈과 희망을 담은 장승을 만들어보고 발표해 봅시다.
마무리	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왜 예절의 출발점이었나요? ② 친구들이 만든 장승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③ 친구들과 다 같이 장승을 높이 들고 자신의 꿈을 크게 외쳐봅시다.

## 2) 장승이란?

마을 입구나 절 입구에 가면 무서운 얼굴이 새겨진 나무 기둥을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나무 기둥을 장승이라고 부른답니다. 장승은 남녀 한 쌍으로 모양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남자 장승에는 “천하대장군”, 여자 장승에는 “지하여장군”이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장군”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재앙과 나쁜 액들을 물리쳐달라는 기원의 의미와 마을 입구임을 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한답니다.

## 3) 장승만들기의 과정

### ○ 재료준비



- 장승재료
  - 받침대, 몸통, 갓, 눈
- 보조 재료
  - 목공용 풀, 칼라 매직

### ① 장승 몸통 이름쓰기



- 준비된 장승의 몸통에 얇은 매직으로 교육 주제에 적합한 내용을 적는다.
  - ↳ 대한민국 대통령
  - ↳ 이수근 같이 웃긴 개그맨
  - ↳ 우리가족 건강하게 등

② 장승 몸통 예쁘게 꾸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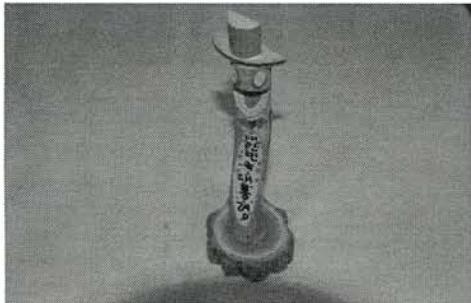
- 자신의 꿈과 소망이 담긴 장승의 몸통을 색연필과 매직을 이용하여 예쁘게 장식한다.

③ 장승 눈과 갓 붙이기



- 장식이 완료된 장승의 몸통에 눈과 갓을 붙여 형태를 완성한다.
- ※ 눈과 갓의 재료는 각자의 창의성을 토대로 자유롭게 꾸밀 수 있다.

④ 장승 세우기



- 제작이 완료된 장승은 목공용 풀을 이용하여 받침대에 견고하게 세운 후, 받침대를 예쁘게 장식하여 완성한다.

## 4. 일상생활의 예절과 상황극

### 1) 교육 지도안

주 제	일상생활의 예절과 상황극	연 령	초등학생	시 간	25분
		장 소	강당 및 교실		
교 육 목 표	1.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올바른 예절을 알 수 있다.				
강 사 구 성	예절강사 1인, 보조강사 2인				
준비물	교육 팸플릿, 펜, 상황극 대본, 기타 소품 등				

단 계	내용 및 활동
도 입	① 일상 생활에서 예절 때문에 고민한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② 예절 때문에 어떤 고민되는 상황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전 개	①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 까지 우리는 어떤 예절들을 행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님께 아침 인사 드리기</li> <li>❖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께 인사 드리기</li> <li>❖ 수업시간에 예의바르게 참여하기 등</li> </ul> ② 상황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자 역할을 맡아 짧은 연기를 진행해요.</li> <li>❖ 친구들에게 목소리가 잘 들리게 해야 해요.</li> <li>❖ 자신의 역할을 잘 표현해야 해요</li> </ul> ③ 상황극을 연기해 봅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친구 사이에 벌어진 다툼 상황</li> <li>❖ 이웃간에 발생한 다툼 상황</li> </ul> ④ 상황극에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마 무 리	① 예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② 자신이 예절이 지키지 않아서 일어났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떠올려 보며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2) 상황극 교안-(1)

등장 인물	학생1, 학생2
지도 방법	○ 주인공 역할을 할 학생 2명을 선발 / 각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 ○ 지도교사가 지문과 대화를 모두 진행 / 학생들은 대사와 지문에 따라 연기
상황 제시	지민이는 여러분과 같은 4학년이고 옆에 앉은 짝꿍이고 수업도 듣고, 음악도 듣는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국어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내주신 모둠별로 진행하는 숙제 때문에 친구들과 둘러앉아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동규는 지민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같은 4학년이고 같은반 친구예요. 지금부터 계속이와 희주가 이야기를 할건데~ 무슨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고 그 후에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해요~ 자 그럼 극이 시작됩니다.
대본	지민 :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어떻게 하지? 먼저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를 해보자. 철수가 극본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춤은 영희가, 동규는 노래해볼까?  동규 : (말을 끊으며) 야 너희가 알아서 해. 난 이런 거 못하니까. 난 할 일도 무지 많고 지금은 나가서 뛰어 놀 거야 (나가려한다)  지민 : (잡으며) 안돼! 선생님이 함께 하라고 했단 말야.  동규 : 난 잘 못한다니깐. 니들이 알아서들 해  지민 : 너 자꾸 이러면 선생님한테 이른다.  동규 : 니가 뭔데 이래? 이를테면 일러라. 대신 너 방길 조심해라~ (뿌리치고 나간다)  지민 : (다시 잡으려 하지만 못잡는다)
생각해 보기	- 위 상황에서 지민이와 동규는 어떤 점이 잘못되었나요? - 내가 동규라면 지민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친구사이 예절	- 학급에서 정해진 규칙을 잘 실천합니다. -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냅니다. - 함께 사용하는 물건은 아껴서 사용합니다. - 공공장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행동합니다.

## 2) 상황극 교안-(2)

등장 인물	학생 1, 엄마1, 주민1
지도 방법	○ 주인공 역할을 할 학생 2명을 선발 / 각자의 역할에 대해 숙지하도록 안내 ○ 지도교사가 지문과 대화를 모두 진행 / 학생들은 대사와 지문에 따라 연기
상황 제시	태희는 여러분과 같은 4학년 친구이고 아주 활발한 친구예요. 그리고 또 다른 역할을 할 거예요. 지금은 희주네 집이 아파트로 이사하고 처음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태희의 어머니는 태희를 너무나 너무나 사랑한답니다. 지금부터 태희와 엄마의 대화를 잘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지켜보고 그 후에 다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해요~
대본	<b>엄마</b> : 태희야~ 여기가 우리집이야. 좋지? <b>태희</b> : 우와 넓네요. 정말 좋아요~ 친구들한테 자랑해야지 <b>엄마</b> : 하하하 이사오니까 좋은가 보구나?\ <b>태희</b> : 네 좋아요 엄마. 집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새집이라 그런지 깔끔하고 너무나 좋아요! (똥다 쿵쿵 쿵쿵) <b>엄마</b> : (희주가 뛰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 한다.) (딩동 덩동) <b>엄마</b> : 누구세요? <b>이웃</b> : (짜증난다는 듯이)아랫층 사는 사람인데요. 너무 시끄러워서 올라 왔어요. <b>엄마</b> : (화난듯이)조그만 애들이 똥다고 얼마나 시끄럽다고 그러세요? <b>이웃</b> : 뭐라고요? 아무리 애들이라지만 이건 좀 너무하지 않나요? <b>엄마</b> : (발끈한다)뭐라고? 이양반아 당신들은 자식도 없어? 우리 애들이 뛰면 얼마나 똥다고 그래? <b>이웃</b> : (어의없다는 듯이) 헐~~~
생각 해 보기	-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아파트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 엄마와 태희의 대화에서 잘못된 점은 무엇일까요? - 적절한 대화법을 생각해보고 재연해 보세요
이웃 사이 예절	- 이웃 어른들께 올바르게 인사하기 - 이웃집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떠들거나 뛰어다니지 않기 -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기

## 5. 친구사이의 예절과 국궁/투호놀이

### 1) 교육 지도안

주 제	친구 사이의 예절과 국궁/투호 놀이	연 령	초등학생	시 간	20분
		장 소	강당 및 운동장		
교 육 목 표	1. 전래놀이의 유래와 방법을 알 수 있다. 2. 놀이를 할 때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알 수 있다.				
강 사 구 성	예절강사 1인, 보조강사 2인				
준비물	투호, 국궁(활과 화살, 과녁)				

단 계	내용 및 활동
도 입	① 전래놀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② 국궁과 투호놀이를 해 본 경험이 있다면 이야기해 봅시다.
전 개	① 투호의 놀이 방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봅시다. ❖ 멀리서 던져야 해요. ❖ 상대방과 겨루기를 해서 화살을 많이 넣는 팀이 이겨요. ❖ 옛날에 궁중이나 양반들이 했던 놀이에요. ② 국궁의 유래와 방법, 놀이 효과에 대해 알아봅시다. ❖ 우리나라의 전통 활쏘기를 국궁이라고 해요. ❖ 활쏘기를 하려면 집중을 잘 해야 해요. ❖ 올림픽에서 비슷한 경기를 봤어요... ③ 놀이를 할 때 친구 사이에는 어떤 예절들을 지켜야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친구에게 장난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요. ❖ 잘 못하는 친구가 있더라도 놀리지 않아요. ④ 조를 나눠서 국궁과 투호놀이를 해 봅시다.
마무리	① 전래놀이를 하면서 친구사이에 서로 배려하며 예절을 잘 지켰나요? ② 만약 친구들과 양보하지 않고 서로 많이 하려고 다투었다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 2) 국궁(國弓)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표적을 맞히는 전통무술입니다. 옛날부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 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되는데요. 오늘날에도 전국의 사정(射亭)에서 활쏘기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국체전의 국궁(國弓) 종목으로 채택되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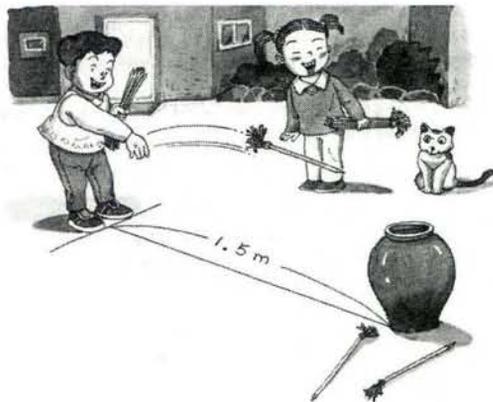
## 3) 투호(投壺)

### ① 놀이의 유래

본래는 중국 당나라에서 성행되었던 놀이인데 옛 고서 『백제전』과 『고구려전』에 이 놀이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이미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궁중이나 양반들이 하던 놀이여서 놀이할 때 예(禮)를 갖추었다고 한다. 현재는 고궁에서나 명절 행사 때 많이 놀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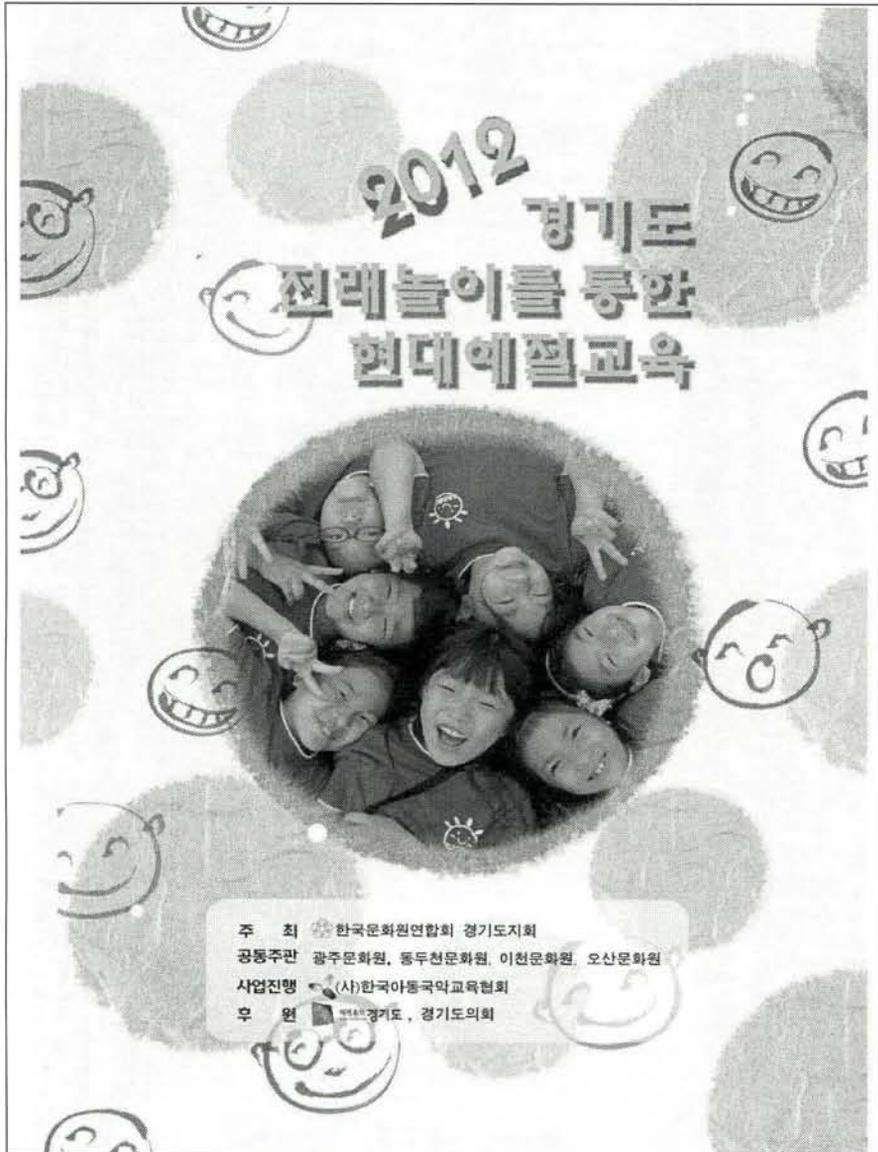
### ② 놀이의 방법

- ① 항아리나 쓰레기통 등의 통과 호살 또는 나무젓가락을 준비한다.
- ② 통과 던지는 자리는 보통 1.5~2m 정도 거리를 둔다.
- ③ 한 사람씩 일정 개수의 화살을 던져 많이 넣는 사람이 이긴다.



### Ⅲ 교육 진행자료

#### 1. 교육 팸플릿



# 교육내용

## 전래놀이와 예절교육

예절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태도와 자세에 적절한 표현과 격식을 갖추는 것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예절이 다르다는 점을 재미있는 놀이와 공연을 통해서 함께 알아봅시다.

순서	예절분야	놀이분야	알아봅시다.
1	공공장소에서의 예절	국악실내악 감상	올바른 공연 감상법과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알아봅니다.
2	수업시간의 예절	예절노래 배우기	재미있는 예절 노래를 배워보고 수업시간에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3	자기존중과 예절	꿈나무 장승 만들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예절의 시작임을 알고 꿈나무 장승을 통해 자신의 꿈을 표현해봅니다.
4	일상생활과 예절	우리들의 예절 고민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통해 예절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봅니다.
5	친구간의 예절	전래놀이 즐기기	재미있는 전래놀이를 즐기며 친구 사이에서는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 나의 예절지수 알아보기

분야	예절생활	그렇다 (10점)	보통이다 (7점)	그렇지 않다 (5점)
자기존중 예절	웃은 항상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습니까?			
	일상생활에서 항상 바르고 고운말을 사용합니까?			
인사와 예절	때와 장소, 상대에 알맞게 바른 인사를 합니까?			
	선생님께 공손한 자세로 말씀을 드립니까?			
가정생활 예절	외출할 때와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말씀을 드립니까?			
	청제 자매간에 서로 돕고 우애있게 지냅니까?			
인터넷과 예절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않습니까?			
	인터넷상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합니까?			
공공생활 예절	식당에서는 조용히 앉아서 바르게 식사합니까?			
	공공장소에서는 정해진 질서를 잘 지킵니까?			
	교통규칙을 잘 지켜 안전한 생활을 합니까?			
친구관계 예절	친구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감싸줍니까?			
	친구에게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며 사이 좋게 지냅니까?			
<b>나의 예절점수(합계)</b>		<b>총점 :</b>		

- 100점~130점 : 당신은 예절왕입니다. 친구들에게 아름다운 예절을 많이 알려주세요.
- 80점 ~ 100점 :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당신도 예절왕이 될 수 있습니다.
- 80점 이하 : 예절 지키기에 좀 더 노력하셔야 합니다. 예절은 당신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 국악실내악을 통한 올바른 공연 감상법 알아보기

## 국악실내악이란?

실내악이란 악기연주를 중심으로 5명에서 10명 안팎의 연주자로 편성되어 실내 혹은 작은 규모의 연주장에서 연주되는 음악을 일컫는 서양의 음악용어입니다. 따라서 국악실내악이란 국악기로 연주하는 소규모 공연 형태를 일컫는 말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악” 또는 “방중악”이라는 고유의 용어가 있습니다.

☆ 공연, 이렇게 감상하면 더 재미있어요.

상상하기  
공연장에 비치된 자료들(리플렛, 팸플릿 등)이나 인터넷을 통해 공연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나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미리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세요....  
⇒ 어떤 노래들이 연주될까? 어떤 장면이 나올까?...

☆ 국악실내악 공연 상상해보기

☆ 국악실내악단 여야홍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국악이야기”

고구려의 혼  
프론티어  
신푸리  
프린스 오브 제주(Prince of Jeju)  
배 띄워라



4

## 국악실내악 감상과 공공장소의 예절

### ☆ 공연, 이렇게 감상하면 더욱 유익해요.

#### ▶ 흥미하기 & 느낌 표현하기

공연을 본 후 조용히 눈을 감고 공연을 되짚어 보세요. 재미있었던 장면이나 감명 깊었던 부분들을 떠올려보고 함께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공연 전체의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해보거나 짧은 글로 적어본다면 더욱 유익한 공연이 됩니다.

### ☆ 국악실내악 공연 되짚어보기

- ◆ 어떤 악기들로 연주했나요?
- ◆ 무슨 곡들이 연주되었나요?
- ◆ 어떤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 ◆ 공연 느낌을 10자 내외로 표현해 봅시다.

### ☆ 공연장에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 질서를 지키며 입장권을 살니다.
- ◆ 공연 전에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연장 예절은?)

- ◆
- ◆
- ◆
- ◆



## 재미있는 전래동요와 놀이

### 나무노래

가자 가자 감 나무 모자 오자 놀 나무  
 바람 숲 숲스 나무 리학 나무 학우 삼 나무  
 방 귀장 풍풍 나무

☆이렇게하면 더 재미어요!

-곤충, 동물, 친구, 가족 등을 소재로 노랫말을 만들어 보세요

### 멤 멤

모 수 버 고 멤 멤 피 들 버 고 멤 멤  
 달 래 이 고 멤 멤 ? 익 고 멤 멤  
 앞 산 - 오 뽕 뽕 갖 산 - 오 뽕 뽕  
 뽕 살 뽕 살 은 아 락 기 뽕 뽕 뽕

☆이렇게하면 더 재미어요!

-한국의 음식중 매운음악을 찾아 노래말을 바꿔 보세요



## 꿈나무 장승만들기와 자기존중

### 장승이란?

마을이나 절 입구에 서있는 무서운 얼굴이 새겨진 나무 기둥을 본 적 있나요?

바로 이 나무 기둥을 『장승』이라고 부릅니다.

장승은 남녀 한 쌍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남자 장승에는 “천허대장군”, 여자 장승에는 “지하여장군”이라고 써어져 있습니다.

“장군”이라는 호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재앙과 나쁜 액들을 물리쳐달라는

기원의 의미와함께 마을 입구임을 표시하는 이정표의 역할도 합니다.

예절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여기는데서 시작합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남도 존중할 수 없어요.

아침에 세수한 후에는 꼭 거울을 보며 외쳐봅시다.

“OO야, 넌 정말 멋있어” 라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 ☆ 꿈나무 장승 만들기

(1단계) 눈을 감고 자신이 되고자하는 꿈을 생각해 봅시다.

(2단계) 멋진 꿈을 이룬 후의 자기 모습을 떠올려 봅시다.

(3단계) 장승 재료를 사용해서 자신의 꿈과 모습을 표현해 봅시다.

# 민속놀이

## 민속놀이란 ?

각 지방의 생활과 풍속이 잘 나타나 있는 놀이로, 민간에 전하여 내려오는 놀이입니다.  
 예로부터 농사를 지었던 우리나라에서는  
 농경의 세시 변화에 맞추어 세시풍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요,  
 이러한 민속놀이는 가무놀이·경기놀이·겨루기놀이·아동놀이로 구분됩니다.

### ☆ 활쏘기

활과 화살을 사용하여 표적을 맞히는 전통무술입니다. 옛날부터 사대부가를 중심으로 기품있는 운동 또는 놀이로서 광범위하게 전승되었는데도, 오늘날에도 전국의 사정(射亭)에서 활쏘기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전국체전의 국궁(國弓)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 버나놀이

버나는 지름 15cm, 두께 10mm쯤 되는 잣바퀴로 양쪽에 철걸을 여러 겹 덧바르고, 가운데에는 가죽을 동공계 오래붙인 것인데요. 예로부터 전국을 유랑하며 공연을 펼치던 "남사당패"에서 전승되는 놀이입니다.  
 남사당패의 공연에는 서민들의 힘든 삶과 양반의 부도덕성을 풍자와 해학을 통해 적절히 펼쳐 놓는 탈놀이나 꼭두각시놀이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 외에도 중간 중간 재담이 섞인 줄타기, 채주넙기, 흥겨운 풍물놀이 등 다양한 기예가 많이 있습니다.

### ☆ 투호놀이

여러 사람들이 두 옆으로 나뉘어 함아리에 화살을 던져 많이 넣는 편이 승리하는 놀이입니다.  
 넓은 마당 복판이나 대청에 귀가 달린 함아리를 가져다 놓고 함아리에서 10보쯤 떨어져 함아리 안에 화살이 들어가도록 하는데, 들어가면 1점을 따게 됩니다.  
 옛날부터 궁중과 양반집에서 주로 하던 놀이입니다.



## 경기도문화원연합회 소개

**한국문화원 연합회**는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1982년 전국 78개 문화원이 연합하여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별법인이다. 연합회는 지방문화원 간의 업무 협조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16개의 지회를 두고 있으며,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는 경기도의 31개 시군문화원과 각 문화원 산하 향토문화연구소와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방문화원은** 1950년대 초부터 향토문화를 보존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생적으로 설립된 공공단체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 법인이다. 2012년 9월 현재 전국 229개의 문화원이 설립되었으며, 각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역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역(향토)문화 조사·연구사업
- 지역축제 개발 육성사업
- 지역주민 문화의식 함양사업
-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전화 : 031-239-1020

홈페이지 : <http://kccfgg.fistory.com>

광주문화원

전화 : 031-764-0686

홈페이지 : <http://www.gjcc.or.kr>

여천문화원

전화 : 031-635-2316

홈페이지 : <http://www.cc2000.or.kr>

동두천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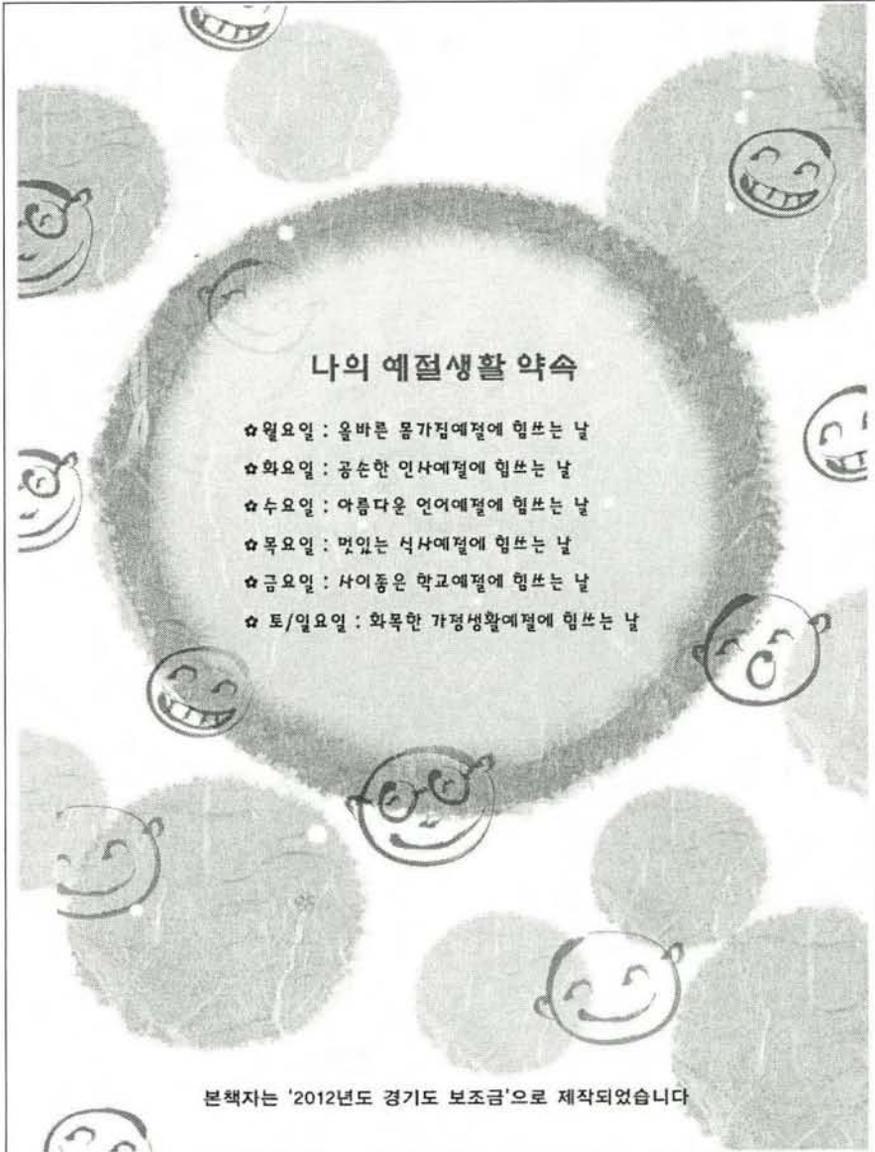
전화 : 031-865-2923

홈페이지 : <http://www.munhwawon.com>

오산문화원

전화 : 031-375-7755

홈페이지 : <http://www.oscc.or.kr>



## 2. 교육평가 설문지 - (1) 참가학생용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교육

### 교육평가 설문지

(교육참가생용)

본 설문지는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이니 부담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이오니 이름을 적지 않으셔도 되며, 해당 질문의 답변에 체크(✓)에 주시거나 간단한 답변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은 '예절은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나요?

- 예절은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1) 여러분은 예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 어른들이 '예절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해서  
 예절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가 나빠질 수 있어서  
 기타( )

2. 평소 생활에서 '예절' 때문에 고민되거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 본 적이 있나요?

- 있습니다.  없습니다.

2-1) 어떤 상황에서 예절 문제로 가장 고민했나요?

3. 여러분은 '예절'에 대해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 가장 많이 배우나요?

- 학교에서 선생님들께  가정에서 부모님 또는 어른들께  기타( )

4. 교육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프로그램별 순위를 정해 주세요.

- 국악실내악 감상과 공공장소의 예절 (     등)  
 예절노래 배우기와 수업시간의 예절 (     등)  
 꿈나무 장승 만들기과 자기 존중 (     등)  
 상황극으로 살펴본 일상생활과 예절 (     등)  
 전래놀이와 친구간의 예절 (     등)

5. 위 질문에서 1등으로 뽑은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이 좋았나요?

6. 오늘 교육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의 예절 실천에 도움이 될까요?

-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보통이에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7. 다음에도 교육이 있다면 참가하고 싶어요?

- 꼭 참가할거예요.  모르겠어요.  참가하지 않을래요.

정답! 만나서 반가웠어요.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 2. 교육평가 설문지 - (2) 인솔교사용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교육

## 교육평가 설문지

학 교 명	학 년	성 명

(인솔교사용)

교육양선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2012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 예절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선생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실시하는 설문어오니 교육을 정권 이시며 느낀 점이나 개선사항 등을 부담 없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은 무기명입니다.

1. 학생들에게 예절을 지도하시면서 애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어떤 부분이십니까?

2. 학교에서 운영하는 예절 교육프로그램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간략한 개요를 알려주세요.

3. 오늘 실시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예절분야의 학습 연계에 관해 간략한 평을 부탁드립니다.
- 
- (☞ 팸플렛 1면 “교육안내” 참조)

4. 본 교육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프로그램을 아래에서 순서대로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국악실내악 감상과 공공장소의 예절 ( 위)
- 예절노래 배우기와 수업시간의 예절 ( 위)
- 꿈나무 장승 만들기와 자기 존중 ( 위)
- 상황극으로 살펴본 일상생활과 예절 ( 위)
- 전래놀이를 친구간의 예절 ( 위)

5. 향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진행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친절히 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제 3 장 부 록

### 참 고 자 료

1. 신나는 전래놀이 / 80
2. 기본 생활예절 / 104

# I 신나는 전래놀이

## 1. 전래놀이의 분류

분 류	항 목	전래놀이의 종류
영아기 노래 놀이		곤지곤지, 째째, 짹자쿵, 도리도리, 들강달강, 동개야, 꼬부랑할머니, 질라래비 훨훨, 불무불무 등
노래와 함께 했던 놀이	놀이하며 부르는 노래	두껍야, 이거리저거리각거리, 쥐야쥐야, 팽팡장서방, 저달봤나, 어디까지왔나, 어깨동무씨동무, 맴맴, 방아깨비, 풍뎅이, 나무노래, 닭잡기놀이 등
	놀이하며 부르는 노래	앞니빠진 갈가지, 오줌싸게 똥싸게, 중중떼떼중, 성풀이 등
	바라며 부르는 노래	바람아바람아불어라, 비야비야오너라, 해야해야나오너라, 잠자리공공, 하마하마춤춰라 등
	흥내 내며 부르는 노래	부엉부엉, 방아깨비, 매미, 메뚜기, 팽팡장서방 등
	익히며 부르는 노래	가가가다가, 별하나나하나, 성풀이노래, 맹공 등
기구를 활용한 민속놀이		고누, 공기, 그네, 제기, 널뛰기, 죽마타기, 돌차기, 비석치기, 산가지놀이, 썰매타기, 연날리기, 윷놀이, 자치기, 장치기, 줄다리기, 칠교, 투호, 팽이, 구슬치기, 콩주머니 돌리기 등
집단놀이		강강술래(고사리꿇기, 기와밟기, 남생이놀이, 대문놀이, 덕석몰이, 청어엮기 등), 줄다리기, 기마싸움, 꼬리잡기, 닭싸움, 봉사놀이, 술래잡기, 숨박꼭질, 다리세기, 닭잡기, 송아지따기, 까막잡기, 수박(동아)따기 등
개인놀이, 짝놀이		소꿉놀이, 두꺼비집, 목말타기, 씨름 등

## 2. 기구를 활용한 전래놀이의 방법

### 1) 칠교놀이

#### ① 놀이의 유래

일곱 개의 나무 조각을 가지고 교묘하게 판을 짜는 칠교놀이는 오래전부터 유행되어 온 놀이로서 “유객놀이”의 일종으로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놀이를 했다고도 한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중국에서 들어온 놀이라고 한다. 미국 웹스터 사전에서 칠교를 의미하는 ‘Tangram’이란 단어를 찾아보면 “지혜의 판(板), 7장의 조각으로 된 중국의 장난감”이라고 소개되어 있다.

칠교놀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 19세기 초부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도 크게 유행하였는데, 나폴레옹이 전쟁에 패하고 섬으로 귀양살이를 할 때 이 놀이로 울적한 마음을 달랬다고 하며, 미국의 소설가 앨런포우가 이 놀이를 광적으로 좋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②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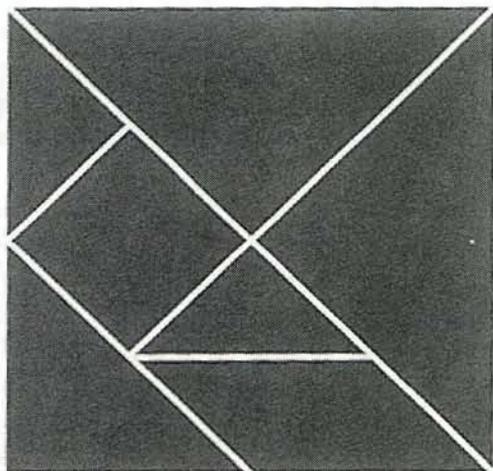
칠교놀이 그림을 보면서 조각판 일곱 개를 그림 순서대로 맞추거나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골라 가면서 만들기도 한다.

두 명 이상이 편을 갈라서 경쟁을 할 때는 미리 무엇을 만들 것인가 약속을 하고 나서 그룹별로 토의를 하여 지혜를 모아 일정한 시간 안에 만들어 놓아야 한다. 다 만들었을 때는 한 점을 얻고 그렇지 못하면 판을 상대방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이와 같이 차례를 바꾸어 가면서 여러 가지 형태를 만드는 가운데 점점 어려운 형태를 상대방에게 지정할 수도 있다. 걸어가는 사람을 만들라고 하면 칠교에서도 걸어가는 사람을 찾아 칠교판 일곱 조각을 가지고 그 형태를 꿰맞추어야 한다. 칠교판은 반드시 일곱 가지 조각을 다 써야 하며, 더 쓰거나 덜 써서 만들어도 안 된다.

### ③ 놀이 기구

정사각형의 두꺼운 마분지나 얇은 플라스틱판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일곱 조각을 내어 활용할 수 있다.



### ④ 칠교로 만들 수 있는 그림



집



백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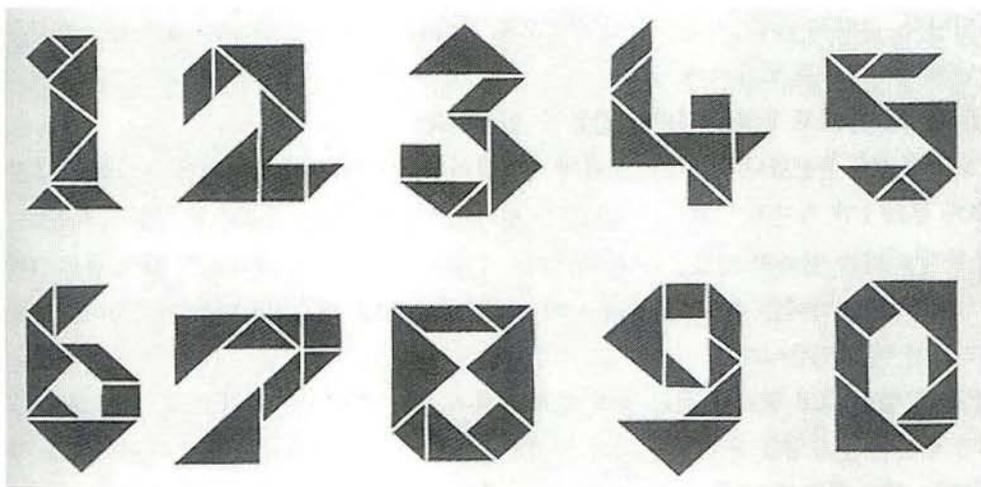


화살표 방향



고양이

㉮ 주제를 가지고 창작한 예(주제 - 숫자)



## 2) 산가지 놀이

### ① 놀이의 유래

산가지의 '산'은 산수할 때 쓰는 '셈 산'(算)으로 셈을 하는 '산가지'란 뜻이다. 옛날 주판이 없을 때에는 나뭇가지(주로 대나무가 쓰였고 나중에는 싸리나무로도 만듦)를 꺾어 셈을 했는데 이 가지를 산가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주판 등 셈 도구의 등장으로 셈하는 기능보다는 놀이 도구로 변했다. 이후 대나무로 만든 산가지 대신 성냥개비를 이용하여 놀기도 하였으며 지방에 따라 '산가비', '산대', '수가비', '수대' 등으로도 불렸다.

### ② 놀이 기구

성냥개비 및 일정한 길이의 나뭇가지나 필기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놀이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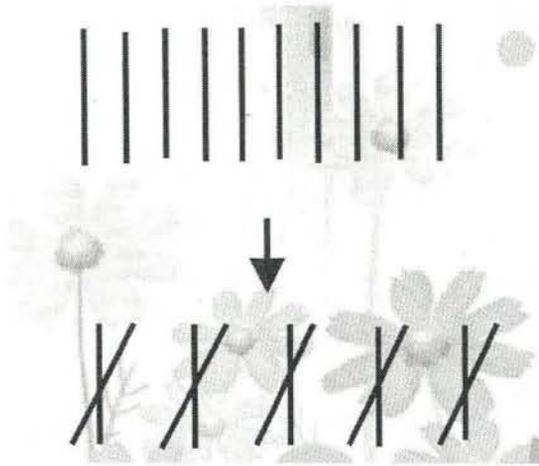
산가지 떼어내기, 높이 쌓기, 형태 바꾸기(자리 옮기기),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산가지 들기, 삼각형 없애기, 쌍 만들기 등의 놀이가 있다.

#### ㉸ (1) 산가지 떼어내기

- ① 산가지 여러 개를 흠어 놓는다.
- ②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한다.
- ③ 1등부터 자신의 산가지로 흠어져 있는 다른 산가지를 떼어 낸다.  
이 때 자기가 떼어 내려고 하는 산가지 이외의 다른 산가지를 건드리면 가져갈 수 없으므로 그대로 놔둔다.
- ④ 건드리지 않고 떼어 내면 계속할 수 있다.
- ⑤ 산가지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하고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긴다. 혹은 산가지에 색을 입혀 색깔마다 점수를 부여하고 자기가 가진 산가지의 점수를 합하여 등수를 가릴 수도 있다.
- ⑥ 겹쳐 있지 않은 산가지는 1등이 모두 가져갈 수 있으니 산가지끼리 붙어 있도록 잘 흠어 놓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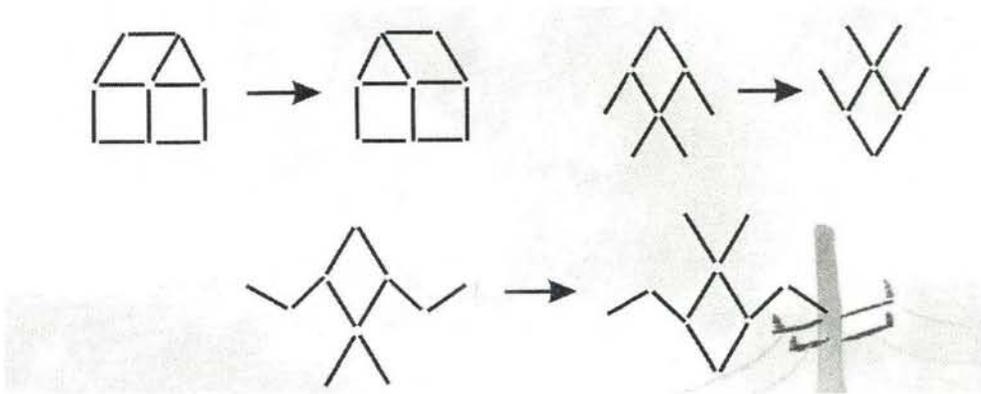
## ㉞ (2) 쌍 만들기

- ① 각자 10개의 산가지를 아래 그림과 같이 가지런히 늘어놓는다.
- ② 규칙은 두 개씩 넘어 세 번째 만나는 산가지와 쌍을 만들어 놓는다.
- ③ 모두 10개 이니 다섯 개의 쌍이 되면 된다. 외톨이가 생기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 ㉞ (3) 형태 바꾸기

산가지로 어떤 형태를 만든 뒤 몇 개의 산가지를 움직여 방향이나 모양을 바꾸도록 하는 놀이이다. 예를 들면 집의 방향 바꾸기(산가지 1개를 움직여서), 새의 날아가는 방향 바꾸기(산가지 3개를 움직여서), 나비의 날아가는 방향 바꾸기(산가지 3개를 움직여서) 등이 있다.



### 3) 비석치기

#### ① 놀이의 유래

목표물로 세워놓은 돌이 비석 같다거나, 돌을 날려서 목표물을 맞힌다 하여 비석치기라 한다. 지방에 따라서 '비석차기', '비사치기', '비새치기', '비껴치기', '망깨까기' 등으로 불린다. 놀이의 유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석전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모의놀이에서 비롯되었다는 설과 탐관오리의 송덕비를 돌로 때려 조롱하는 민초들의 저항의식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

#### ② 놀이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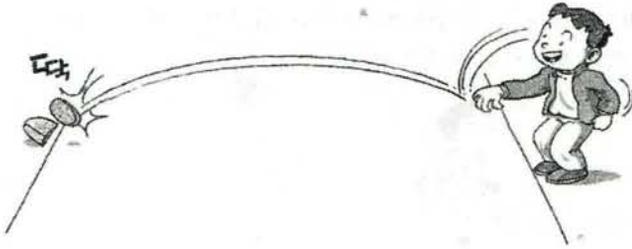
평평하고 세울 수 있는 돌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돌'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 평평한 나무토막을 활용하기도 한다.

#### ③ 놀이 방법

손바닥만 한 크기의 두툼하고 납작한 돌로 노는데, 이 돌을 '망' 또는 '말'이라고 부른다. 놀이장소로는 평평한 마당이나 공터가 좋다. 선을 그어 출발선을 표시하고 그로부터 3-5m 떨어진 곳에 비석을 세워 놓고 망을 던져 맞힌다. 편을 가르고 진 편은 건너편 금위에 각자의 비석을 세워 놓는다. 이긴 편은 차례대로 망을 던져 놀이를 한다. 이때 한 개라도 상대편 비석이 살아 있으면 '치기'를 했던 편이 술래가 된다. 지방에 따라서 각 단계는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제 자리에서 던져 맞히고 다음 신체의 각 부위에 돌을 올려 목표물 앞으로 걸어가 겨냥하여 맞히는 방식이다. 요즘은 '돌'이 안전사고의 문제가 있어 평평한 나무토막을 이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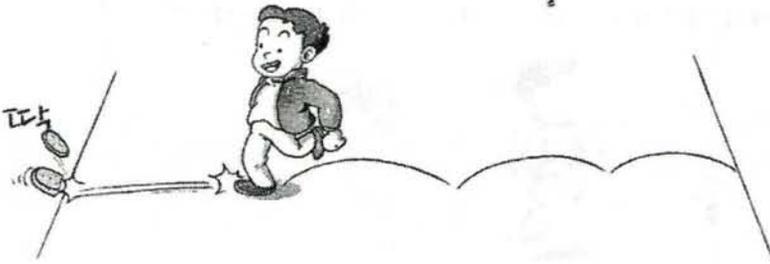
㉞ (1) 던지기

- 선 채로 그냥 던지기
- 한발, 두 발, 세 발 뛰어 던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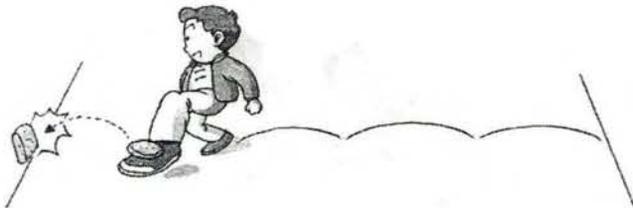
㉞ (2) 세 발 뛰어 차기

- 망을 던져 놓고 세 발 뛰 다음 네 발 째 차서 쓰러뜨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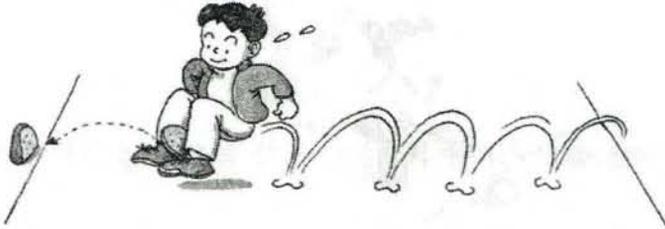
㉞ (3) 발등(도둑발)

- 망을 발등에 얹은 채 떨어뜨리지 않고 망 있는 곳까지 걸어가 바로 앞에서 맞춰 쓰러뜨리기
-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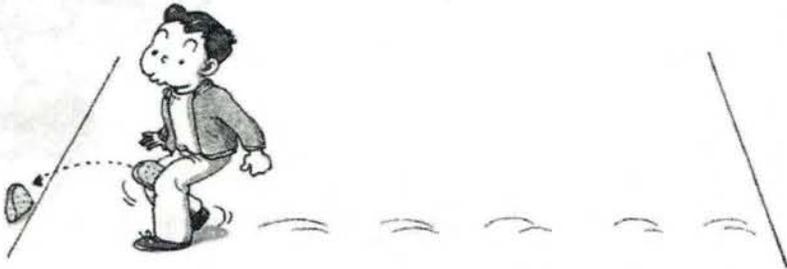
## ㉞ (4) 발목(토끼뿔)

- 망을 발목 사이에 끼워 넣고 토끼뿔으로 뛰어가 쓰러뜨리기



## ㉞ (5) 무릎(오줌싸개)

- 망을 무릎 사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리기



## ㉞ (6) 가랑이(똥꼬)

- 망을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리기
- 망을 가랑이 사이에 끼우고 가서 뒤돌아선 다음 쓰러뜨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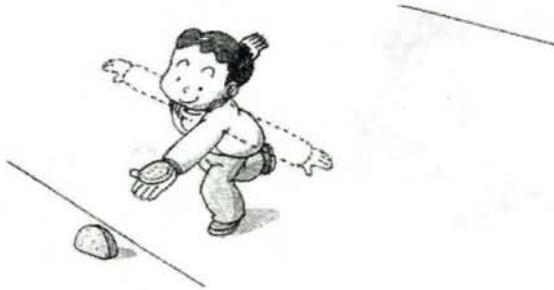
㉞ (7) 배(배사장)

- 망을 배 위에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리기



㉞ (8) 손등(비행기)

- 팔을 쭉 펴 손등 위에 망을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리기
-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 사용



㉞ (9) 신문팔이

- 망을 겨드랑이에 끼우고 가서 쓰러뜨리기



㉞ (10) 어깨 (훈장/계급장)

- 어깨 위에 망을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리기
- 오른쪽, 왼쪽어깨 번갈아 사용



㉞ (11) 목

- 어깨와 목 사이에 망을 끼워 놓고 가서 쓰러뜨리기



㉞ (12) 머리(떡장수)

- 머리 위에 망을 올려놓고 가서 쓰러뜨리기



㉞ (13) 장님(봉사)

- 망을 던져 놓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걸어가 망을 찾아 눈을 감은채로 던져 쓰러뜨리기



## 4) 제기차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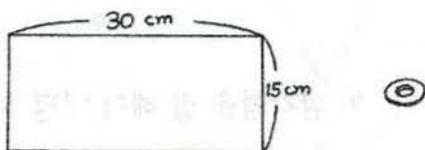
### ① 놀이의 유래

음력 정초를 전후한 겨울철 놀이로 어린이들이 골목길이나 넓은 마당에서 즐기던 제기차기는 요즘에도 가끔 볼 수 있는 놀이로써 그 기원이 꽤 오래 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중국에서 무술을 닦기 위해 만들어진 축국이 있었는데, 털로 짠 가죽 공을 여러 사람이 차서 높은 장대 위의 망 위에 많이 올려놓는 경기였다고 한다. 공에 공기를 넣어 사용하면서부터 '축국'(蹴鞠)이 '축구'(蹴球)가 되었다고도 한다. 발로 차서 목적을 이루는 연계성으로 보아 오늘날의 축구 경기의 원조는 제기차기라는 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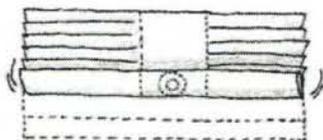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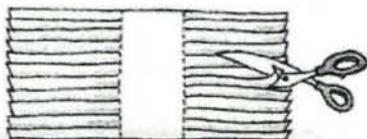
『구당서』(舊唐書)에는 고구려 사람들이 축국을 잘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신라 시대에도 지금의 제기차기인 축국이 성행했다고 하는데, 김유신은 이 축국을 빙자하여 후에 태종 무열왕이 된 김춘추의 옷고름을 일부러 밟아 떨어뜨려 누이인 문희에게 옷고름을 달게 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인연을 맺음으로써 문희를 왕후로 삼게 하였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실려 있다. 하지만 그 유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 ② 놀이 기구 - 제기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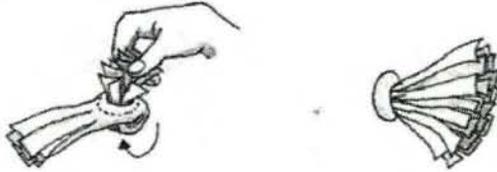
ㄹ (1) 종이나 비닐, 와셔나 동전, 쿠킹호일을 준비한다.



ㄹ (2) 가운데 부분만 남겨 놓고 잘라 술을 만들고 와셔나 동전을 가운데 놓고 손으로 접으면서 돌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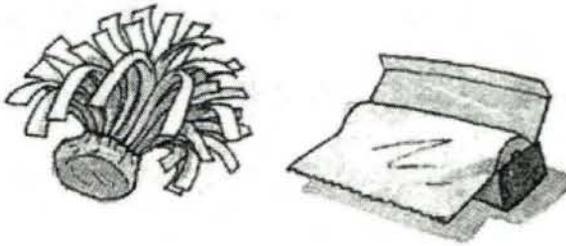


- ㉞ (3) 종이 양 끝을 와서 구멍에 넣어 빠지지 않게 하거나, 동전의 경우 양 쪽을 접어 고무줄로 묶는다.



- ㉞ (4) 제기의 무게는 와서나 동전의 개수로 조절한다.

- ㉞ (5) 와서나 동전의 윗면을 쿠킹오일로 싼다.



### ③ 놀이 방법

#### ㉞ (1) 땅강아지

- 한 발로 차며 찰 때마다 차는 발이 땅에 닿아야 한다.



#### ㉞ (2) 혈령이

- 차는 발이 땅에 닿지 않게 까불어 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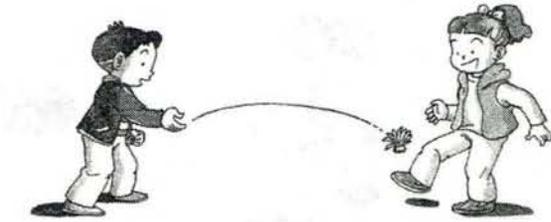
#### ㉞ (3) 양발차기

- 제기를 오른발, 왼발 번갈아 차는 방법으로 양 발 안쪽으로 차거나 한 발은 안쪽, 한 발은 바깥쪽으로 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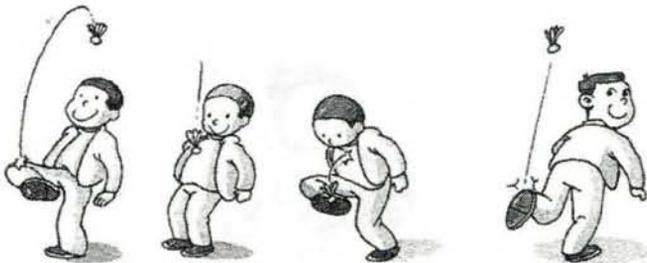
#### ㉞ (4) 종들이기

- 두 명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기를 찬 다음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종을 들인다.
-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세 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제기를 던져 준다.
- 이긴 사람이 헛발질을 했을 때, 이긴 사람이 차낸 제기를 종 들이는 사람이 받았을 때, 제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순간 종 들이는 사람이 쳤을 때는 서로 바꾸어 종들이기를 한다.
- 이긴 사람이 제기를 발로 찬 다음 손으로 잡고 멀리 뛰어가서 다시 제기를 차면 그 숫자만큼 다른 벌칙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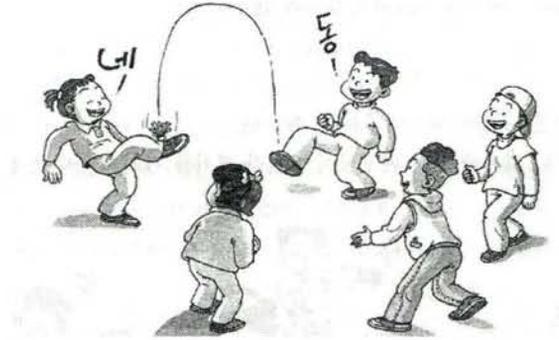
#### ㉞ (5) 재주 부리기

- 찬 제기를 머리, 가슴 등에 올렸다가 떨어뜨려서 찬다.
- 제기를 발 뒤축으로 차 올린 다음 앞에서 다시 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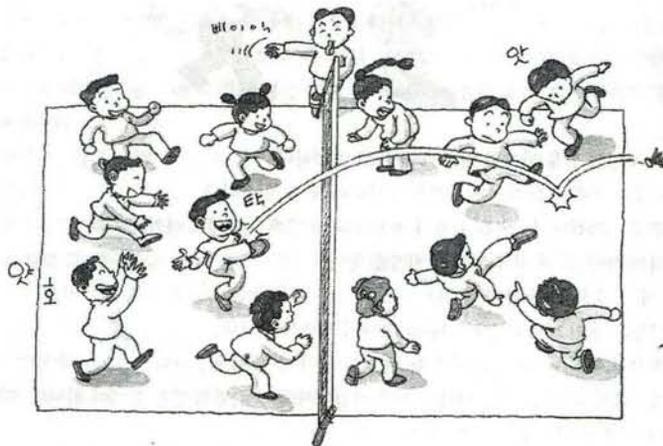
### ㉞ (6) 동네제기

- 누구나 처음 동네제기를 시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 제기를 차서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차는 사람이 '동', '네', '제', '기' 혹은 '동네', '제기', '차고', '놀자'를 외친다.
- 혼자서 여러 번 찰 수도 있고 한 번만 차고 넘겨 줄 수도 있다.
- 잘못해서 헛발질하거나 사람이 없는 엉뚱한 곳으로 차면 그 사람이 종을 들여야 한다.



### ㉞ (7) 제기배구

- 제기를 가지고 편을 나눠 제기배구를 한다.



### 3. 전래동요와 함께하는 놀이

#### 1) 나무노래 놀이

##### ① 놀이의 형태

나무의 이름만 가지고도 재미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 그 나무의 이름을 가지고 재미있는 노랫말을 한 가지씩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나무노래는 우리말의 기본 운율인 4음보로 되어있기 때문에 4박으로 된 모든 장단에 맞추어 부를 수가 있다.

##### ② 나무노래의 장단 : 자진모리-휘모리

덩	덩	덩    덕	콩   덕
가   자	가   자	감   -   나	무
오   자	오   자	웃   -   나	무
바   람	술   -   술	소   -   나	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	무
방   -   귀	뽕   -   뽕	뽕   -   나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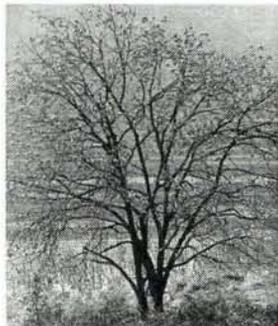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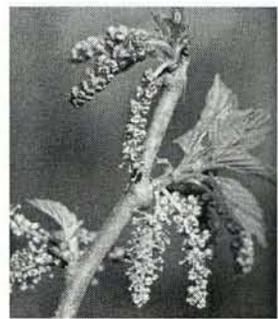
☞ '감나무', '웃나무', '소나무', '살구나무', '뽕나무' 대신에 다른 나무나 혹은 곤충, 동물, 친구, 가족을 소재로 노랫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 : 사각 사각 사과나무 / 위로 뺨은 대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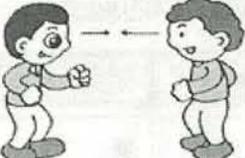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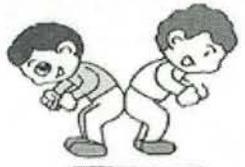
(예 : 슬금 슬금 송충이 / 배불뚝이 아 - 빠)

## ③ 나무노래 악보

방 귀 뽕 뽕 나무 가 자 가 자 감 나무  
 오 자 오 자 옷 나무 바 람 솔 솔 소 나무  
 너 하 구 나 하 구 살 구 나무 방 귀 뽕 뽕 나무



4 나무노래 놀이의 방법

노 래	동 작 설 명	움 동
가자 가자 감나무	등을 마주댄 상태에서 양팔을 흔들며 앞으로 나아간다.	
오자 오자 옷나무	뒤를 돌아 다시 짝궁을 향해서 걸어온다.	
바람 솔솔 소나무	팔을 높이 들고 어깨를 흔들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표현한다.	
너하구 나하구 살구나무	오른쪽 어깨 - 왼쪽 어깨에 두 손을 차례대로 얹고 마주보며 까딱까딱 한다.	
		
방귀 뽕뽕 뽕나무	뒤로 돌아서 '뽕나무~'부분에서 엉덩이를 서로 툭 친다.	

자진모리 장단에 이어 점차 휘모리 장단으로 속도를 빨리하며 진행한다.

## 2) 맴맴

### ① 놀이의 형태

‘맴’이란 말은 제자리에 서서 몸을 뱅뱅 돌리는 몸짓을 가리키며, ‘맴맴’은 아이들이 맴돌면서 부르던 노래이다. 마늘, 고추 등을 먹고 너무 매워 가만히 있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다가 서니 세상이 덩달아 빙글빙글 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② 노래의 장단 : 자진모리

덩	덩	덩-덕	쿵덕	덩	덩	덩-덕	쿵덕
고 추	먹 고	맴	맴	마 늘	먹 고	맴	맴
달 래	먹 고	맴	맴	○ ○	먹 고	맴	맴
앞 산	도	뺑	뺑	뒷 산	도	뺑	뺑
뱅 글	뱅 글	돌 아	라	가 위	바 위	보	

㉞ 한국의 음식 재료 중 매운 양념류로 노랫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 : 양파 먹고 맴 맴 / 겨자 먹고 맴 맴)

㉞ 한국의 음식 중 매운 음식으로 노랫말을 만들어 보세요.

(예 : 매운탕 먹고 맴 맴 / 불닭 먹고 맴 맴)

### 3] 맬맬 노래 악보

고 추 먹 고 맬 맬 마 늘 먹 고 맬 맬  
달 래 먹 고 맬 맬 ? ? 먹 고 맬 맬

앞 산 - 도 뱅 뱅 뒷 산 - 도 뱅 뱅

뱅 글 뱅 글 돌아 가 가 위 바 위 보

### 4] 맬맬 놀이의 방법

노래	동작 설명	움동
고추먹고 맬맬 ~?! 먹고 맬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손을 돌린 후, 손뼉 두 번 치기</li> </ul>	
앞산도 뱅뱅 뒷산도 뱅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왼손을 허리에 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위로 뻗어 돌린다.</li> <li>• 오른손을 허리에 놓고 왼손 검지손가락을 위로 뻗어 돌린다.</li> </ul>	
뱅글뱅글 돌아라 가위바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 손을 돌린 후 가위바위 보한다.</li> </ul>	

## 5] 맴맴 놀이의 벌칙

### ㉞ 벌칙(1)

-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뒷목에 손가락 짚고  
알아맞히기

### ㉞ 벌칙(2)

- 가마솔의 누룽지 벌칙놀이

가 마 솔 의 누 룽 지 팍 팍 굶 어 서  
오 드 득 오 드 득 씹 어 서 맛 있 게 먹 자 ~ ~

노래	동작 설명	움동
가마솔의 누룽지	• 술래가 된 아이의 등을 네 번 토탕 거린다.	
팍팍 굶어서	• 두 손으로 등을 굶는다.	
오드득 오드득 씹어서	• 손가락으로 등을 씹는 시늉을 한다.	
맛있게 먹자 ~ ~	• 술래의 등을 마구 두드려 준다.	

## II 기본 생활예절

### 1. 바른 마음가짐과 몸가짐

#### 1) 바른 마음가짐

##### ① 바른 마음가짐의 중요성

- 인간의 모든 행동은 그 마음에서 출발한다.
-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예절바른 행동으로 표현된다.
- 바른 마음가짐을 가질 때 나와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다.

##### ② 바른 마음가짐이란?

#### ☞ 구사(九思) : 격몽요결(擊蒙要訣) / 율곡 이이

1. 시사명(視思明) 눈으로 볼 때는 밝고 바르게 옳게 보아야겠다고 생각한다.
2. 청사충(聽思聰) 귀로 들을 때에는 그 소리의 참뜻을 밝게 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
3. 색사온(色思溫) 표정을 지을 때에는 온화하게 가져야겠다고 생각한다.
4. 모사공(貌思恭) 몸가짐이나 옷차림을 공손히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5. 언사충(言思忠) 말할 때는 참되고 거짓없게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6. 사사경(事思敬) 어른을 섬길 때는 공경스럽게 할 것을 생각한다.
7. 의사문(疑思問) 의심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서 완전히 알아야겠다고 생각한다.
8. 분사난(忿思難) 분하고 화나는 일이 있으면 어려움에 이르지 않을까를 생각한다.
9. 견득사의(見得思義) 자기에게 이로운 것을 보면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를 생각한다.

## 2) 바른 몸가짐

### ① 바른 몸가짐의 중요성

바르고 자연스러운 몸가짐, 단정하고 우아한 몸가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내며 같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한다.

우리는 눈, 입 등 얼굴표정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며 목소리를 통하여 상대의 속마음을 알기도 한다. 따라서 바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른 몸가짐이 필수적인 것이다.

### ② 바른 몸가짐이란?

☞ 구용(九容) : 격몽요결(擊蒙要訣) / 율곡 이이

#### 1. 족용중(足容重)

발을 옮겨 걸을 때는 신중하게 한다. 그러나 어른의 앞을 지날 때와 어른의 명령으로 일을 할 때는 민첩하게 한다.

#### 2. 수용공(手容恭)

손의 모습은 공손하게 한다. 일이 없을 때는 두 손을 모아 공손하게 공수한다

#### 3. 목용단(目容端)

눈은 단정하고 곱게 뜬다. 치뜨거나 결눈질을 하지 않는다.

#### 4. 구용지(口容止)

입은 조용히 다물어야 한다. 말 하지 않을 때는 입을 벌리거나 어른 앞에서 껌 같은 것을 씹으면 안 된다.

#### 5. 성용정(聲容靜)

목소리는 나직하고 조용하게 해야 하며 시끄럽거나 수선스럽게 하지 않는다.

#### 6. 두용직(頭容直)

머리를 곧고 바르게 가져 의젓한 자세를 지킨다.

#### 7. 기용숙(氣容肅)

호흡을 조용히 고르게 하고 안색을 평온하게 해서 기상을 엄숙하게 갖는다.

#### 8. 입용덕(立容德)

서있는 모습은 그윽하고 덕성이 있어야 한다. 기대거나 비뚤어진 자세는 천박하게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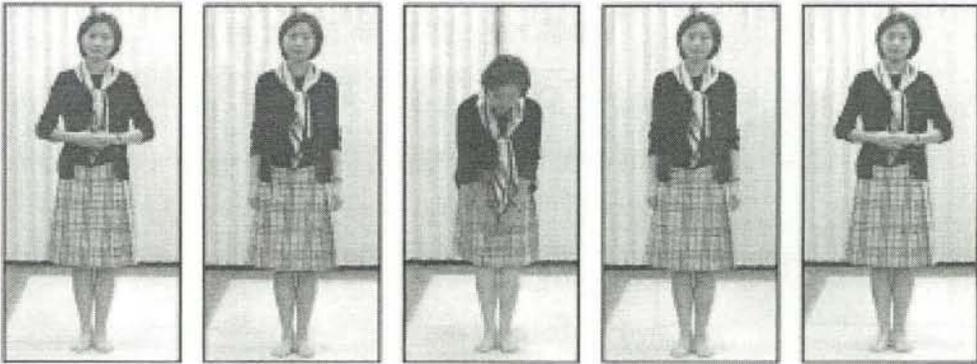
#### 9. 색용장(色容莊)

얼굴 표정은 항상 명랑하고 씩씩하게 갖는다.

### ③ 공수(拱手) 두 손을 앞으로 모아 맞잡는 자세

- 평상시 남자는 왼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오른손을 위로 한다.
- 홍사에는 반대로 남자가 오른손을 위로 하고 여자는 왼손을 위로 한다.
- 두 엄지손가락을 깎지 끼듯이 교차하고 손을 배 부위보다 다소 높게 올리고 양복을 입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앞으로 내린다.  
그러나 여자의 경우는 배꼽 부위 정도에 올리도록 한다.

#### 【공수한 자세를 취하였을 때 인사 순서】



## 2. 기본 예절

### 1) 인사예절

#### ① 인사의 5대 원칙

-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 마주칠 때마다 인사합니다.
- 상대가 보지 못하거나 인사를 받지 않아도 인사합니다.
- 제대로, 정식으로, 즉시 인사합니다.
- 일어서서 인사합니다.

#### ② 선절의 종류

종 류	자세 및 요령	
큰경례	선절에서 가장 정중한 인사로서 상체를 45도 이상 굽히되 머리는 숙이지 않는다. 의식 때나 애사(哀事)시에 영전에 한다.	
평경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방법으로 상체를 30도 정도 숙인다. 뒷사람이나 직장 상사에게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인사방법이며 대인관계에서는 경우에 따라 행한다.	
반경례	동료나 아랫사람과의 인사에서 답례로도 한다. 상체를 15도 정도 숙인다.	

종 류	자세 및 요령	
목 록	<p>상체를 굽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고개를 약간 숙이고 인사말을 한다거나 밝은 표정의 미소를 상대방에게 보낸다. 자주 대할 때나 사람들 앞을 지나갈 때, 목욕탕이나 화장실 같은 곳에서 행할 수 있다. 선 자세, 앉은 자세, 걷는 자세에도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이다.</p>	
약 수	<p>서구적인 인사 방법으로 뒷사람이나 여성이 먼저 청해야 하며 오른손을 마주 잡고 인사말을 나눈다.</p>	
기 타	<p>이외에도 특정한 의식행사에서 사용되는 거수경례, 국기에 대한 경계 등이 있다.</p>	

큰경례(정중례)	평경례(보통례)	반경례
 <p>45°</p>	 <p>30°</p>	 <p>15°</p>

③ 주의해야 하는 인사법과 인사말

눈을 보지 않고 말을 하지 않는 인사	생각하거나 흐트러진 인사
	
<p>윗사람에게는 '수고했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쓰지 않아야 한다. 대신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라는 인사말을 사용한다.</p>	<p>계단 위쪽에 서서 윗사람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 걸음을 빨리 하여 아래로 내려서서 인사를 한다.</p>
<p>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p> <p>어? 어...그래</p> 	<p>선생님, 안녕하세요?</p> <p>어? 어...그래</p> 

## 2) 언어예절

언어는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한다. 또한 언어는 그 사람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울이라고 한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한 사람의 생각과 사고, 성격과 인성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전하기도 하며,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하여 알리는 말과 행동이 예절의 격식이다. 따라서 언어예절이란 약속된 말로써 상대방에게 격식을 갖추어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1] 올바른 대화 태도와 요령

- ① 말의 속도를 적당히 해야 한다 -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알아들을 수 없고, 너무 느리면 지루한 느낌을 준다.
- ② 상대방의 눈을 보며 대화하여 호감을 갖게 하는 것이 좋다.
- ③ 대화 중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 ④ 말의 크기를 적당히 하여야 한다.
- ⑤ 긍정과 부정을 분명히 한다.
- ⑥ 유머와 몸짓은 지나치지 않는 한에서 필요하다.
- ⑦ 혼자 아는 척 하지 않는다.
- ⑧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도록 한다.
- ⑨ 상대의 말을 성실하게 듣는 태도를 갖는다.
- ⑩ 외국어나 어려운 말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되도록 삼간다.
- ⑪ 너무 지나친 농담은 삼간다.
- ⑫ 대답을 하지 않는 것은 결례이다.

## ② 대화 중 금기사항

- ① 상대방의 관심, 취미, 기호에 대하여 비방하는 것.
- ② 여성에게 나이를 묻는 것.
- ③ 체중이나 몸매의 치수를 묻는 것
- ④ 사생활에 관계되는 것
- ⑤ 상대가 창피하게 여기는 것
- ⑥ 상대의 종교에 대하여 지나치게 묻는 것
- ⑦ 상대방의 용돈이나 월급을 묻는 것
- ⑧ 상대 지위의 고하를 묻는 것
- ⑨ 상대의 어떤 사항에 대하여 필요 이상의 관심을 갖는 것

## ③ 생활 속에 나타나는 존댓말

보통말	존댓말	보통말	존댓말	보통말	존댓말
밥	진지	보다	보시다	먹다	잡수시다
나이	연세	데리고	모시고	주다	드리다
말	말씀	있다	계시다	문다	여쭙다
집	댁	자다	주무시다	저 사람	저 분

### 3) 수업 시간의 예절

#### ① 수업을 시작할 때와 끝날 때의 예절

- ① 수업을 시작할 때
  - 반장이 “경례”하는 구령을 하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하고 앉은 채로 인사한다.
- ② 수업이 끝났을 때
  - 반장이 “경례”하는 구령에 일제히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한다.
- ③ 경례하기 전에 책이나 공책, 필기도구를 내놓지 않거나 미리 집어넣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다.

#### ② 수업 시간의 예절

- ① 허리와 가슴을 펴고 바른 자세로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두 무릎 붙인다.
- ② 옆 사람과 잡담을 하거나, 다른 책을 보거나 또는 그 시간의 공부와 관계없는 낙서, 만화를 그리지 않는다
- ③ 질문에 대한 응답은 바른 자세로 푹푹한 목소리로 한다.
- ④ 책은 왼쪽, 공책과 필통은 오른 쪽에 놓는다.
- ⑤ 자세를 바르게 하고 침착한 마음으로 공부한다.
- ⑥ 바른 자세로 글씨를 쓰고 연필은 55°~60°정도 기울게 잡고 돌려 가면서 쓴다.

#### ③ 질문할 때의 예절

- ①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이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질문을 한다.
- ② 질문은 선생님 말씀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한다.
- ③ 질문할 때의 태도는 단정하고 반듯하게 서서 진지한 얼굴로 차근차근 말씀드린다.
- ④ 질문을 할 때에는 손을 들고 선생님께서 지명하시면 일어서서 간단하고 명확하게 질문한다.

#### 4 토론할 때의 예절

- ① 대립 의견은 강하게 부정하는 말을 쓰지 않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용어를 쓴다.  
 ✎ “저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
- ② 의견을 첨가할 때는 말한 사람의 의견을 인정하면서 거기에다 미비하거나 부족한 점을 보충하는 발언을 한다.  
 ✎ “그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거기에다 저는 이런 생각을 덧붙이면 더욱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의 예절

- ① 바르게 앉아서 선생님을 주목하면서 듣는다.
- ② 선생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거나 느낀 점을 메모하면서 듣는다.
- ③ 선생님 말씀 도중에 질문하거나 말하지 않고 선생님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손을 들어 공손히 말씀드린다.

#### 6 친구가 말할 때의 예절

- ① 말하는 사람을 쳐다보며 듣는다.
- ② 친구가 말할 때 중간에 나서서 말하거나 비웃는 말을 하지 않는다.
- ③ 자기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듣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한다.
- ④ 좋은 발표를 했을 때는 너무 크지 않게 박수를 친다.

## 4) 전화 예절

### ① 전화를 걸 때의 예절

- ① 용건은 미리 정리해 짧은 통화가 되게 한다.
- ② 늦은 밤, 이른 아침, 식사 시간은 가급적 피한다.
- ③ 잘못 걸렸으면 '죄송합니다. 전화가 잘못 걸린 것 같습니다'하고 정중하게 사과한다.
- ④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정확하게 연결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자기소개부터 한다.
- ⑤ 상대가 이쪽을 알아차리면 먼저 인사하고, 용건을 말한다.
- ⑥ 상대가 없으면 받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가를 정중하게 묻고 용건을 말한다.
- ⑦ 용건이 끝나면 정중하게 인사하고, 전화를 끊겠다고 예고한 다음 끊는다.
- ⑧ 어른과 통화를 하는 경우 용건이 끝난 뒤 어른이 먼저 끊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화를 내려놓는다.

### ② 전화를 받을 때의 예절

- ① 되도록 벨이 세 번 이상 울리기 전에 받고 먼저 자기를 소개한다.
- ② 전화를 건 사람이 확인되면 먼저 인사부터 한다.
- ③ 다른 사람을 찾으면 친절하게 기다리라는 말을 한 후에 바꾼다.
- ④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정을 설명하고, 대신 받아도 되겠느냐고 묻는다.
- ⑤ 남에게 온 전화는 통화 내용, 시간, 용건 등을 전해준다.
- ⑥ 통화가 끝나면 정중하게 인사한다.
- ⑦ 가능하면 전화를 건 사람이 먼저 끊은 후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 ⑧ 잘못 걸려온 전화라도 친절하게 응대한다.

### ③ 휴대전화 예절

- ① 공연장이나 수업시간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는 벨소리가 외부로 들리지 않도록 한다.
- ② 보행 중에 통화를 하는 경우 주위를 잘 살피고 짧게 통화한다.
- ③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통화를 할 때는 작은 소리로 신속하고 짧게 통화한다.

## 5) 식생활 예절

### ① 어른을 모시고 식사할 때의 예절

- ① 웃어른을 아랫목에 모신다.
- ② 식탁에 앉은 자세는 바르게, 의젓하면서도 자연스러워야 한다.  
상 모서리에 앉지 않도록 조심한다.
- ③ 웃어른이 수저를 든 다음에 수저를 든다.
- ④ 어른보다 먼저 식사를 끝냈을 때에는 수저를 밥그릇이나 숟가락에 얹어 놓았다가 어른이 식사를 끝냈을 때 상위에 내려놓는다.

### ② 식사 전 예절

- ① 식사 전에는 꼭 손을 깨끗이 씻는다.
- ② 어른들께 “○○○, 진지 드십시오”라고 말씀드린다.
- ③ 어른보다 먼저 수저를 들거나 음식에 손대지 않는다.
- ④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앉는다.
- ⑤ 학교에서의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만 하도록 한다.

### ③ 식사 중 예절

- ① 숟가락과 젓가락을 한꺼번에 잡지 않는다.
- ② 밥이나 국은 숟가락으로, 반찬은 젓가락으로 먹는다.
- ③ 밥상 위에 팔꿈치를 얹지 않는다.
- ④ 음식을 입에 넣은 채 이야기 하지 않는다.
- ⑤ 음식 먹는 소리, 그릇 부딪치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 ⑥ 반찬을 뒤적거리거나 집었다가 놓지 않는다.
- ⑦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

#### ④ 식사 후 예절

- 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식사가 끝났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린다.
- ② 수저를 숟가락 그릇이나 빈 접시에 얹어 놓았다가 어른이 식사를 끝냈을 때 상위에 내려 놓는다.
- ③ 이쑤시개 사용은 삼가는 것이 좋으나 꼭 필요한 경우에는 손수건이나 한쪽 손으로 입을 가리고 사용하도록 한다.
- ④ 식사를 마친 뒤에는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
- ⑤ 대접을 받았을 때는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 ⑥ 식사 후에는 이를 닦는다.
- ⑦ 식사 후에는 식탁 정리나 설거지를 도와 드린다.

별 첨

교육사진 및 참고문헌

1. 교육 사진 / 117

2. 참고 문헌 / 123

## I 교육사진



【교육 소개 -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국악실내악 감상과 공공장소의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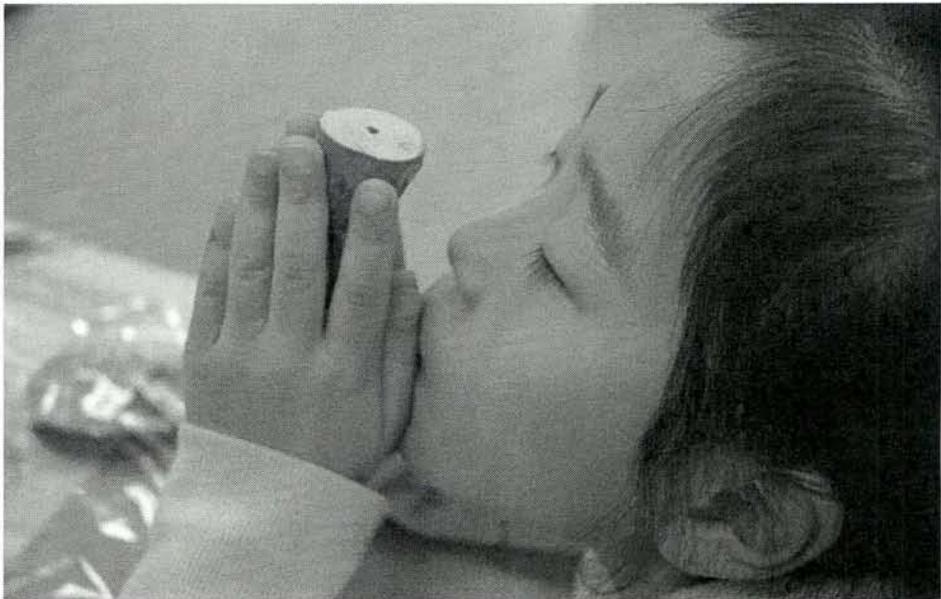
**[국악실내악 감상과 공공장소의 예절]**



**[예절노래 배우기와 수업시간의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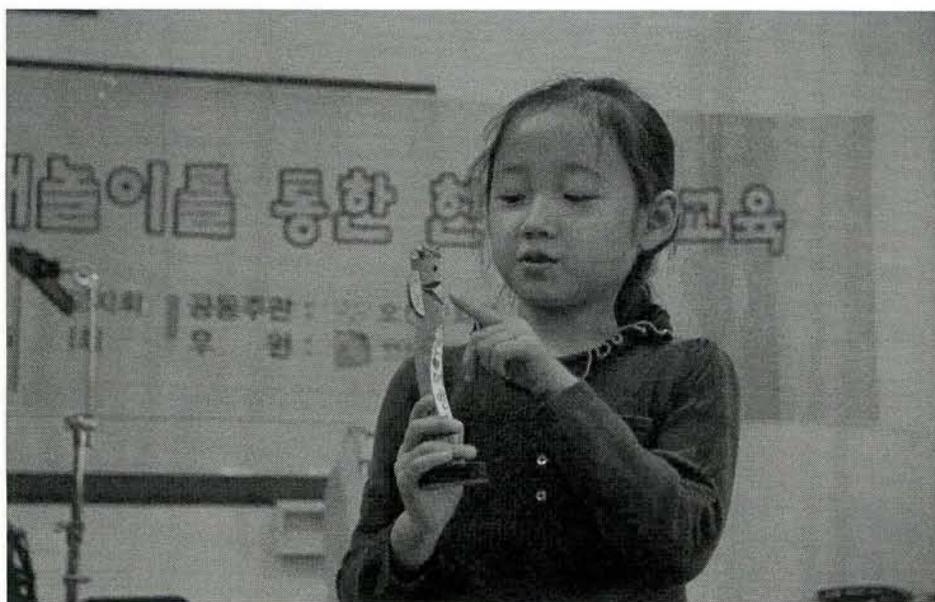
**【예절노래 배우기와 수업시간의 예절】**



**【자기존중과 꿈나무 장승 만들기】**



**【자기 존중과 꿈나무 장승 만들기】**



**【자기존중과 꿈나무 장승 만들기】**



**【상황극으로 살펴본 일상생활과 예절】**



**【전래놀이와 친구사이의 예절】**

## Ⅱ 참고 문헌

- 김광언 글 · 김수남 사진, 『민속놀이』, 서울 : 대원사, 1989.
- 이상호 지음 · 박향미 그림, 『전래놀이 101가지』, 서울 : 사계절, 1999.
- 이재선, 『우리나라의 민속놀이』, 서울 : 한국문화사(영인), 1997.
- 장세현, 『한눈에 반한 우리 미술관』, 서울 : 도서출판 거인, 2007.
- 전송배 · 모형오, 『유아국악교육』, 서울 : 양서원, 2003.
- 정병모, 『사계절의 생활풍속』, 파주 : 보림, 2004.
- 서정은, 『실천 중심의 기본생활예절 지도』,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조성화, 『전래놀이가 초등학생의 인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영미, 『한국 아동 전통놀이의 재조명을 통한 현대놀이의 비판적 고찰』,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 장미용, 『전래놀이 활동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장효진, 『초등학생의 실외 전래놀이 활동이 신체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황효임, 『전래놀이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복련, 『운율이 있는 전래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하명희, 『예절 인지와 실천 및 학교 예절교육 요구도 분석 : 학생, 학부모, 교사를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조은미, 『실천지향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 방안 연구』, 광주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경기도 전래놀이를 통한 현대예절교육 교육지도서

**발행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발행일** 2012. 12

**연구/개발** (사)한국아동국악교육협회

**후원** 경기도, 경기도의회

**문의**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Tel. (031)239-1020

Fax. (031)239-3785

<http://www.kccfgg.or.kr>

본 지도서의 내용을 인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지도서의 저작권은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에 있습니다.



한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6층)  
전화 031-239-1020 팩스 031-239-3785